

저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안전동력입니다

PM 7:30

환자이송원 이승찬 기능원

모든 환자분이 편안하게 치료받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저녁 식사를 든든하게 마친 오후 7시 30분경, 환자이송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집니다. 병실에 있던 환자들이 저녁 검사를 받으러 이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시간이 촉박하다고 해서 무조건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환자 이송의 원칙은 첫째도 둘째도 '안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환자 이송 업무를 맡은 지도 6년째, 이승찬 기능원은 환자 한 분, 한 분이 편안하게 치료받고 귀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임무라고 말합니다. 휠체어나 침대 주변을 살펴보고 환자 이송에 나서는 그의 손길에서 따스한 노련미가 느껴집니다.



한양대학교의료원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Vol.158
2019 July / August

Special theme
대한민국 핫(HOT) 이슈
고온스트레스를 해소하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2019. 7 + 8 vol. 158

© 한양대학교의료원

알찬 건강정보로
먼저 다가가는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에 다시 인사 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

삼복(三伏)더위란 말이 있습니다. 일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인 초복, 중복, 말복을 함께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복’ 자는 앉드릴 복(伏)을 씁니다. 옛 성인들은 가장 더울 때 집에서 조용히 쉬며 보양식으로 기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지요. 이번 호는 무더위에 지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보양식처럼 영양가 높은 정보를 가득 담겠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 7+8월호 스페셜 테마에는 더운 날씨에 따라 발병하는 질환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올해는 폭염특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빠른 특보가 발효된 해입니다. 폭염일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온의 날씨가 지속될수록 온열질환과 감염성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열하는 태양에 지친 분들에게 냉수처럼 시원함을 안길 알찬 건강정보가 담겨있으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한양토피에는 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을 위해 중환자실의 의료 환경을 대대적으로 재구축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소식이, 다이내믹 한양에는 건강전문채널 ‘HiHy 건강저장소’ 소식이 담겼습니다. 환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설된 다양한 SNS 채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한양대학교의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65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양대학교의료원 ㉓

대한민국
핫(HOT) 이슈,
고온스트레스를
해소하다

폭염의 계절이 다가왔다. 고온의 날씨가 지속되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도 많아진다. 특히 떨어지는 입맛과 열대야에 따른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을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



Contents

02	즐거운 편지	알찬 건강정보로 먼저 다가가는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04	안녕하세요, 선생님	전형준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08	Hanyang Topic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중환자실

14	Special theme ❶	생활습관 개선으로 속 편한 여름 보내기
16	Special theme ❷	잠 못 이루는 열대야, 수면장애 극복하기
18	Special theme ❸	간단한 생활 습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한다

20	Dynamic Hanyang	한양대학교병원 건강전문채널 ‘HiHy 건강저장소’ 운영
24	미디어 속 건강주치의	팜스타 레이디 가가와 섬유근통
26	베스트 파트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협력병원 강내과의원
28	Dr. Opera	헨리 퍼셀 세미오페라 <요정 여왕>
30	Dr. Movie	부적응자들을 그리는 두 가지 방식
32	예술과 의학의 만남	프리다 칼로와 척수손상
34	고마운 당신에게	신경외과 고용 교수님과 소화기내과 이항락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36	주목할 만한 연구	전신마취 소아환자의 각성 흥분과 불안을 줄이는 방법
38	언론 속 한양인	
40	한양뉴스	한양대학교병원, 위암·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외
43	발전기금	
46	한양캘린더	
47	외래 진료 시간표	



발행처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1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홍보팀 02-2290-9532~6
발행일 2019년 7월 5일 통권 158호 발행인 최호순 편집인 이항락 편집위원 대외협력위원회
기획총괄 손화선 편집디자인 큐라인 02-2279-2209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은 한양대학교의료원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학이념을 담아
격월간으로 펴내는 매거진입니다. 홈페이지 www.hyumc.com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 수령 주소가 변경되신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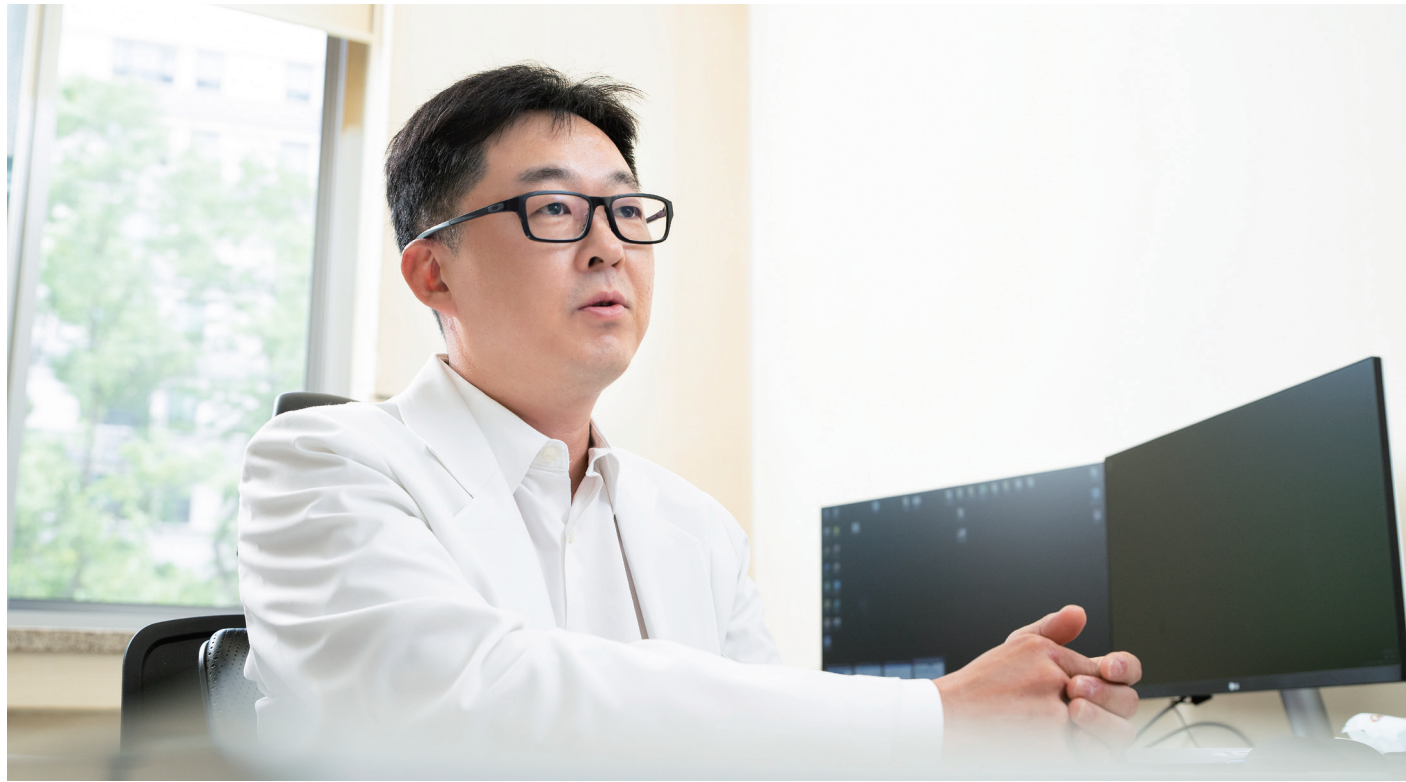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선생님

‘천상 의사’의 약속

전형준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

전형준 교수는 참으로 끈질기게, 그리고 치열하게 정진하는 사람이다. 진료실에서든 수술실에서든 연구실에서든 컨퍼런스 강단에서든, 그의 신경은 늘 환자 곁에 있어 왔다. 예기치 못한 불행과 고통이 산재하는 세상에서 이런 의료진을 만난다는 건, 참 행운이다. 글, 윤진아 사진, 김재이





이토록 집요하고 솔직한 질환과의 전면전

전형준 교수의 철학은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것’이다. 이 확고한 원칙이 많은 생명을 구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놀다가 크게 다쳐 머리가 찢어진 경험에 있는 전형준 교수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예 피를 못 보던 소년이었다. 피가 무서워 의대 진학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던 그가 의대생이 됐다. 본과 1학년 해부학 교실에서 카데바(Cadaver)를 만질 엄두가 안 나 안절부절못하던 그에게 선배들은 ‘다른 진로를 찾아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진짜 포기하고 나가야 하나, 고민 많이 했죠. 지금은 그 솔한 고비를 넘기고 신경외과 의사가 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사람 목숨을 살리고 고통을 덜어주는 직업이 어디 흔한가요?”

그는 첫 수술을 집도했던 환자를 십 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당시 30대 중반이던 젊은 환자는 류마티스를 오래 앓아 심한 목 통증을 호소했고, 전형적인 경추 불안정증 증상을 보였다.

“몇 차례 상담 끝에 수술을 결정하면서 주치의인 제게 ‘이런 수술을 많이 해봤냐고 묻더라고요.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선한 거짓말 대신 ‘당신이 처음’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는데, 저를 믿고 수술을 결정하셨어요.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경과도 좋아 정말 고맙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 환자 덕분에 더 많은 경추 불안정증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전형준 교수는 환자들에게 ‘솔직한 주치의’, ‘사실대로 알려주는 의사’가 되어 ‘이 의사 말은 믿어도 된다’는 신뢰를 안기 고자 노력한다. 실제로 “수술 중에 이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해나가면 될 것 같다”고 말해주는 그에게 환자들도 두터운 신뢰를 보낸다. 환자 곁에서 온 힘을 다해 병인을 찾아내고, 떼어내고, 마침내 고치겠노라는 의사의 약속만큼 큰 위로가 또 있을까. 병을 고치는 데는 의사의 노력만큼이나 환자의 의지도 중요하다고 말하는 전형준 교수는 “의사와 환자가 각자의 몫을 다하면 건강을 되찾고 행복해지는 길 또한 멀지 않다”고 강조했다. 더 열심히 진료하고 치열하게 연구해 환자들에게 굳건한 신뢰를 안기겠노라는 약속에도 웬지 믿음이 갔다.

경추 불안정증 분야의 선두 주자

전형준 교수에게는 ‘경추 불안정증 수술 분야를 이끄는 젊은 주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경추 불안정증은 널리 알려진 질환은 아니다. 7개의 경추(목뼈) 가운데 1번과 2번은 너트와 볼트 형태로 맞물려 있고, 5개의 가느다란 인대와 관절로 연결돼 있다. 보통 1번 경추의 전방고리 후면과 2번 경추 전방 간 거리는 3mm 미만을 유지한다. 둘 간격이 5mm 이상 벌어져 움직임이 과도해질 경우 ‘경추 간 불안정증’이라고 한다. 간격이 10mm 이상 벌어지면 후방의 척수신경을 압박하게 된다.

“류마티스 질환을 오래 앓거나 치료약을 먹으면 주변 인대가 약

해져 1,2번 경추가 정상적인 간격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초기엔 고개 돌릴 때 경추통이나 후두부 통증을 호소하는 정도지만, 병이 깊어져 척수신경이 압박되면 마비 등의 신경학적인 결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걷기가 불편해지고 잡은 물건을 놓치는 일이 빈번해질 땐 곧바로 수술해야 합니다.”

전형준 교수는 “보존적인 치료로 통증을 조절할 수도 있지만, 중국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게 된다”며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하면 환자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확률도 높고 합병증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1년에 한 번, 경추 X선 촬영을 하면 경추 불안정증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질환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경추통이 없더라도 주기적인 촬영을 통해 불안정증 발생을 체크하길 권합니다. 류마티스 환자는 나이가 들면서 뼈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뼈 조직도 약해지기 때문에 1,2번 경추 간격이 7mm 이상이라면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경추 검사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환자 고통 덜기 위한 부단한 한 걸음

전형준 교수는 의심과 분석, 검증과 임상 적용을 거듭하며 쉬지 않고 새 길을 연다. 숨을 쉬고 밥을 먹듯 연구하고 논문을 써왔으니, 누구보다도 무기가 많은 셈이다. 2017년 신경손상학회에서 「제1,2 경추 간 유합술을 위한 극돌기간에 메쉬 심지를 이용한 고정술의 효과」라는 논문으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1,2 경추 간 유합술은 극돌기 간 골유합이 중요한 인자이지만, 자가골을 이용한 경우가 아니면 골유합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가골 이식은 합병증이 있을 수 있어 대체재가 필요한데, 메쉬 심지를 이용하면 골유합 확률을 높이고 안정성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지요.”

인터뷰 내내 전형준 교수는 휴대전화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언제 실려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환자는 의사의 지식과 능력만큼 회복되는 법이죠. ‘단 하루만이라도 고통 없이 살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다’는 환자들의 하소연은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내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금껏 밝혀지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고 검증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계속해나갈 겁니다.” 그는 연구실에 들어설 때마다 떨리고 설렌다. 피 보기가 어려워 심호흡을 거듭해야 했던 의대생 시절에도, 세계 의료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도, 전형준 교수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분을 잊지 않으며 환자들에게 희망의 약손을 건넨다. 그것이 그의 사랑 실천 방식이다. 🏥



환자는 의사의 지식과
능력만큼 회복되는 법이죠.
내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고통을 없애기 위해 연구를
계속해나갈 겁니다.



더욱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돌봄으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중환자실

경기 동북부에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역할은 남다르다. 지역에 위치한 대학병원으로서 인근 지역에서 찾아오는 여러 중증환자를 감당하고 있는 까닭이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렇기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중환자실은 어떤 환자이든 끝까지 책임지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글. 정라희 사진. 김지원



한층 발전한 중환자실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대대적인 리모델링 이후, 내방환자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다. 눈에 보이는 곳만 변화한 것이 아니다. 심도 있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곳마다 한 단계 발전한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경기 동북부 지역의 유일한 대학병원인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중환자실은 인근 지역 중증환자 진료의 최전선에서 활약해온 곳이다. 기존에도 수준 높은 의료진을 통해 중증환자 치료에 앞장서 왔지만,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중환자실도 한 단계 변화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뒤따랐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이 수년 전부터 단계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가운데 2017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중환자실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수년간 중환자실을 대표해 중환자실 운영 정책 결정에 앞장서온 호흡기내과 김태형 교수의 설명이다. 2015년 한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는 감염 예방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한 계기였다. 이때의 교훈을 바탕으로 2017년 의료법이 개정되어 병상 간격 조정과 격리실 개선 등을 포함한 시설 변화가 절실하게 된 것이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오랜 숙제였던 공간 부족은 중환자실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기존 환경에서는 개정된 의료법에 적합한 수준의 병상 간격을 확보하기 쉽지 않았다. 그 외에 적절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 음압격리실을 설치하는 등의 과제도 남아 있었다. 이를 위해 중환자실장인 김태형 교수와 2016년부

터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로 근무하며 관련 인력의 중환자 의학 교육을 전담해온 호흡기내과 박태선 교수 그리고 63명의 간호팀이 최적의 중환자실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다.

성공적인 리모델링으로 적정성 평가 1등급

중환자실 리모델링은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의 순차적인 리모델링과 함께 이루어졌다. 병원 운영 중 필요한 병상 수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규정에 맞추어 병상 간격을 조정하고 부대 공간을 마련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같은 장소에서도 수차례 병상 배치를 조정하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나갔다. 개선 과정에서 기울인 의료진의 노고는 상당했다. 간호팀 역시 환자를 돌보는 수고 속에서도 더 나은 중환자실을 구축하고자 적극적으로 리모델링에 동참했고, 사무직원들도 중환자실 리모델링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쉬는 날도 반납하고 일을 도왔다. 25년간 중환자실에서 근무해온 반은주 파트장은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고 콘센트 위치까지 고심하면서 리모델링에 참여했다”고 전한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리모델링을 통해 중환자실을 확대 재배치하면서 병상 간격을 1.5m로 넓히는 등 감염 예방과 관리를 강화했다. 더불어 공기정화에 필요한 공조 시스템 강화, 음압격리실 설치 등 감염관리시스템 구축에 전력을 기울였다. 병상 간격이 1.5m 이상으로 넓어지고, 의료진의 동선도 한층 효율적으로 개선됐다.

이를 바탕으로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의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최우수에 해당하는 1등급을 받았다. 리모델링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의료법 규정에 적합한 시설을 구축해 진료의 표준화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박태선 교수는 “음압격리실 확보로 감염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교체로 더욱 효과적인 환자 돌봄이 가능해졌다”고 전한다. 더불어 중환자실의 진료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시도 중이다.

“진료 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충분한 인력 확보와 함께 숙련도 역시 올라가야 합니다. 내과계와 외과계 등 각 분야에 초점을 둔 교육과 실습을 병행해야 하고요. 중환자실 근무에 일부 참여하는 약사와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에게도 중환자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강화로 치료 효율성을 높인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중환자실은 리모델링과 함께 운영 체계에도 변화를 주었다. 기존에 통합으로 운영해온 중환자실을 내과계와 외과계로 구분해 분리한 것. 김태형 교수는 “병원마다 중환자실 운영 체계는 조금씩 다르며, 중환자실 유형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있을 뿐 우열은 없다”고 말한다. 다만, 한양대학교구리병원은 현재 병원 인프라에서 중증환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내과계와 외과계 중환자실을 구분했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도 추가로 확충했다. 지난 3월에 부임해 외과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신경외과 배인석 교수는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파악해 외과계 의료진과 협의하는 통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전한다.

중환자실 리모델링과 전담 전문의 확충 이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중환자실의 치료 효율성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중환자실 인프라를 구축해가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계획은 신속대응팀 구성과 전자차트시스템인 EMR 확충이다. 신속대응팀이 구성되면 긴급 상황에서 병동 환자들이 중환자실로 이동하기 전에 적절한 집중 치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자차트시스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처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중환자실은 한 번의 개선에 멈추지 않고 꾸준한 변화를 통해 중환자 치료의 전문성을 높여가는 중이다. 🏥



시설 리모델링과
전담 전문의 확충 후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중환자실의 치료
효율성은 눈에 띄게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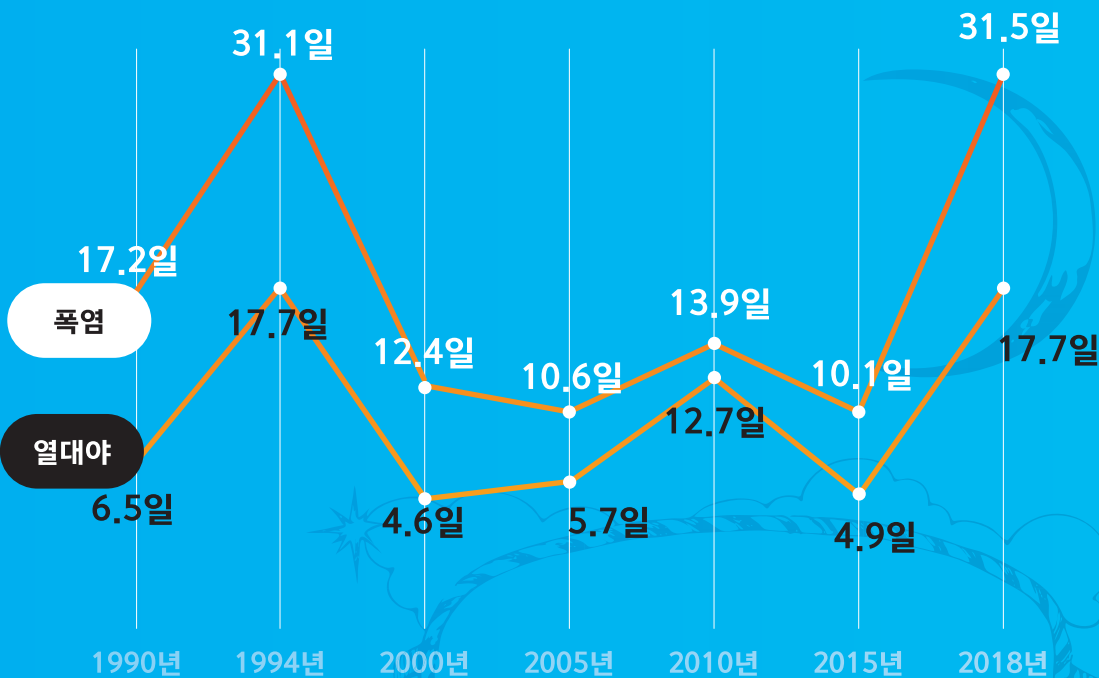
대한민국 핫(HOT) 이슈, 고온스트레스를 해소하다

1990년 17.2일에 불과하던 폭염일수가 계속 늘고있다. 지난해에는 ‘전설의 더위’로 불리던 1994년의 기록을 넘어 역대 최장 폭염일수를 기록하기도 했다(31.5일). 더위는 올해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폭염특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래 가장 빠른 특보가 올해 발효되었으며(5월 16일, 광주) 6월말부터 전국 단위로 특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폭염일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여름이 더 오래, 더 많이 더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온의 날씨가 지속되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도 많아진다. 열사병과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은 물론이요, 강한 자외선에 의한 피부화상, 세균번식으로 인한 감염성 질환 등의 발병률도 높아진다. 특히 무더운 날씨로 떨어진 입맛, 열대야에 따른 수면 부족이 면역력을 떨어뜨려 우리 몸을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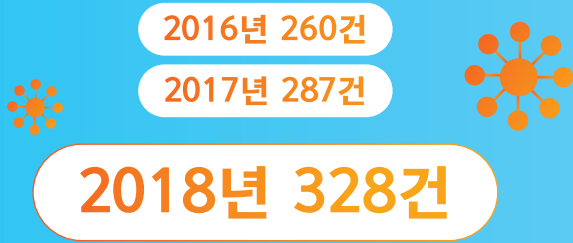
대한민국 여름철
폭염 및 열대야 일수

(*출처: 기상청 기후통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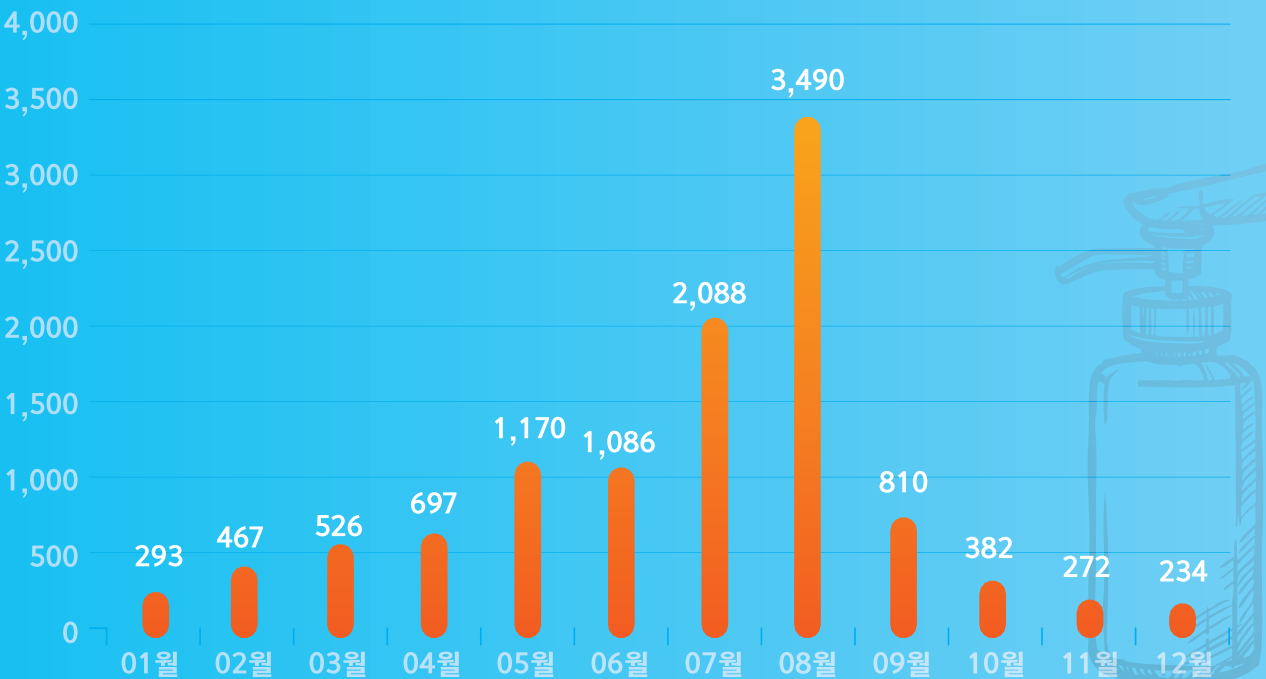
여름철 설사감염병
집단발생 현황

(2016~2018년, 5~9월, *질병관리본부)



7~8월에 급증하는
일광화상 환자 수

(단위: 명,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활습관 개선으로 속 편한 여름 보내기

무더위와 냉방병으로 인한 설사, 소화불량 등 위장장애 예방법



글. 박찬혁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화기내과

설사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성 이질의 경우,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여름에 찾아오는 불청객, 설사질환

설사질환은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지만, 여름철엔 그 빈도가 찾아진다. 겨울철에 비해 두 배 가량 많이 발생하며 이는 나이와 관계가 없다.

설사질환을 유발하는 세균성 이질의 경우,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가 지난해 발표되었다. 평균기온이 섭씨 1도 상승할 때마다 17.5%, 평균강수량이 1mm 증가할 때 마다 2.9% 상승한다.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 세균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음식물이나 사람의 손에 세균이 쉽게 번식하고 이는 설사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세균 때문만은 아니다.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이나 차가운 음료, 음식 등을 자주 먹게 되고 열대야로 잠들기가 어려워 늦은 시간까지 술이나 야식을 먹는 경우가 늘는데 이로 인해 소화불량 등의 위장장애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차가운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줘 위장관 운동과 소화 흡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고 제대로 소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잠을 잘 경우, 위장 운동 기능이 더욱 감소하여 울렁거림, 팽만감, 설사, 복통 등이 심화될 수 있다.

잡은 온도 변화와 냉방병

무더위로 발생하는 위장장애를 막기 위해, 실내에 들어온 후엔 무조건 시원하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까? 꼭 그렇지지는 않다. 물론,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여 쾌적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체내의 자율신경계 반응이 원활해지고 땀 배출로 인한 탈수를 줄일 수도 있으며, 찬 음료나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건강에 이로운 작용을 할 것이다. 하지만 실내 온도를 지나치게 떨어뜨려 안팎을 오갈 때 5~8도 이상의 온도 변화에 자주 노출되면 위장장애는 물론, 두통이나 전신 무력감, 여러 호흡기 증상 등

이 나타나는 '냉방병'에 걸릴 수 있다. 냉방병은 엄밀히 말하자면 의학용어는 아니다. 냉방을 하고 있는 실내에서 오랜 시간 머물 때 나타나는 가벼운 감기, 두통, 근육통, 권태감, 소화불량 같은 여러 임상 증상을 총칭하는 말이다. 외부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확장되어 있던 말초혈관이 급속도로 수축함에 따라 혈액 순환에 이상을 유발할 수 있고, 뇌의 혈류량 감소에 따라 머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 또 장 운동 변화에 따라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

건강한 여름을 나는 법

날이 더워지면 땀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된다. 따라서 적절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너무 찬 음료나 음식으로 급격히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로 이열치열 방식으로 너무 뜨겁고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여 더위를 이겨내는 것도 좋지 않다.

여름철 보양식을 통해 평소 부족했던 영양을 섭취하는 것은 좋지만, 음식을 너무 뜨겁거나 차갑게 먹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만약 체한 느낌이 있어 소화기능이 떨어졌다고 생각된다면 소화가 쉽고 자극적이지 않은 죽으로 식사를 대체하도록 한다. 이후 증상이 완화되면 원래 식단으로 식사를 하면 된다.

낮이 길어지고 날이 더워졌다고 하여 식사 시간을 평소보다 늦추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저녁 식후에는 가벼운 산책 등을 통해 위장에 자극을 주고, 잠들기까지 최소 3시간 이상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야간 위장장애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끝으로 여름철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 늘 손을 청결히 유지하자. 화장실에 다녀온 후, 혹은 식사 전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는 습관을 기르면 무더운 여름 설사로 고통받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다. 🍉

02 Special theme

대한민국 핫(HOT) 이슈, 고온스트레스를 해소하다



잠 못 이루는 열대야, 수면장애 극복하기

‘꿀잠’을 위한 12가지 방법



글. 노성원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떨어뜨려 질환의 발생률을 높이고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를 자극해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

열대야에는 왜 잠이 안 올까?

우리 체온은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오르락내리락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체온이 오르기 시작해 저녁에 최고에 달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점차 떨어진다. 체온이 내려가면서 잠이 드는 것이다. 그런데 열대야가 발생하면 체온이 떨어지기가 어렵고 이로 인해 불면증이 생길 수 있다. 불면증은 인구의 1/3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흔한 질환이다. 불면증 환자의 10%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십 년까지 만성불면증으로 고통 받는다. 수면 부족은 건강을 위협한다.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성 질환이나 암에 걸릴 위험을 높이고,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손상을 주어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치매의 위험을 높인다.

여름밤, 잠 못 드는 나도 불면증?

보통의 수면 시간은 7~8시간이지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밤잠을 6시간 이하로 자도 낮에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고, 9시간 이상을 자야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나이에 따라서도 다른데 보통 노인의 수면 시간이 젊은 사람보다 짧은 편이다. 스스로가 불면증이라고 생각된다면, 다음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자. 불면증 심각도 척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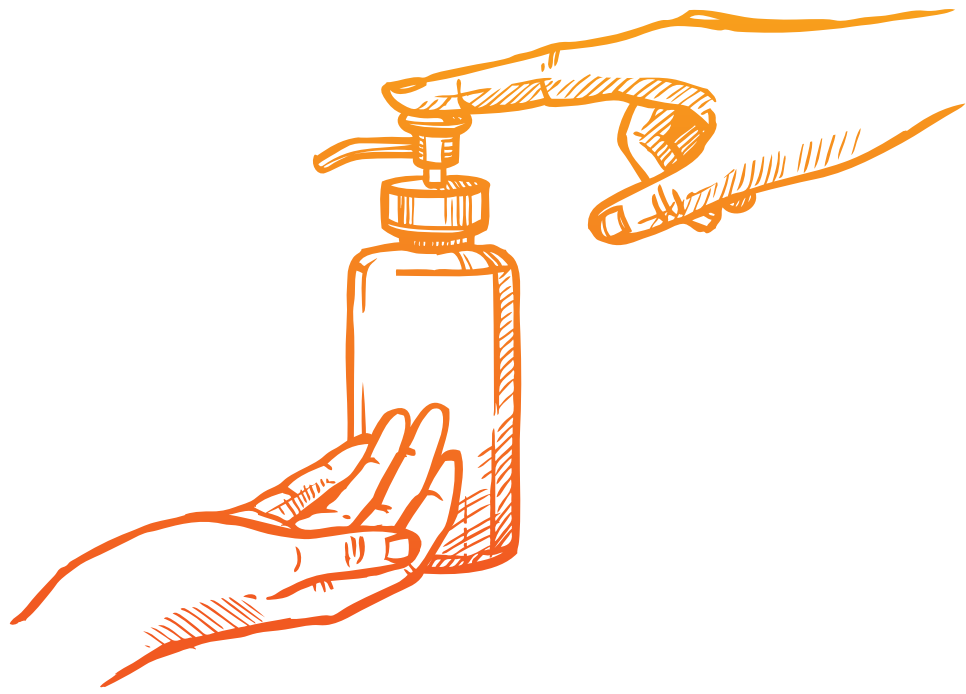
<지난 2주 동안 당신의 불면증이 얼마나 심했나요? >
1. 잠들기 어렵다.
① 없음 ② 약간 ③ 중간 ④ 심함 ⑤ 매우 심함
2. 잠을 유지하기 어렵다.
① 없음 ② 약간 ③ 중간 ④ 심함 ⑤ 매우 심함
3. 너무 일찍 깬다.
① 없음 ② 약간 ③ 중간 ④ 심함 ⑤ 매우 심함
4. 현재 당신의 수면양상에 얼마나 만족하는가?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중간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 수면문제로 일상생활에 얼마나 방해 받는가? (예: 주간피로, 집중력, 기억력, 기분 등)
① 전혀 안됨 ② 약간 ③ 어느 정도 ④ 많이 ⑤ 매우 많이
6. 당신이 수면문제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주변사람들이 어느 정도 아는가?
① 전혀 모름 ② 약간 ③ 어느 정도 ④ 많이 ⑤ 매우 많이
7. 현재 수면문제에 관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가?
① 전혀 안함 ② 약간 ③ 어느 정도 ④ 많이 ⑤ 매우 많이

- 0~7점: 불면증 없음, 8~14점: 기준 이하 불면증, 15~21점: 중간 정도 불면증, 22~28점: 심한 불면증
- 15점 이상인 경우는 임상적인 불면증으로 간주되어 치료가 필요하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열두 가지 꿀팁

잠을 못 자 괴롭다면 수면제를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약물치료만큼 비약물적인 치료도 중요하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잘 지키다면 불면증 극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❶ 수면 시간표를 지켜라.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난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므로 주중과 주말에 일정한 수면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열두 가지 비결 중 가장 중요하다. ❷ 운동은 좋지만, 너무 늦게 하지는 말라. 매일 30분 정도의 운동을 잠자기 2~3시간 전까지는 마친다. ❸ 커피와 담배를 피하라. 카페인과 니코틴은 뇌를 자극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든다. ❹ 잠자기 전에는 술을 피하라. 술을 마시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많이 마시면 알은 잠만 자게 하고, 호흡에도 지장을 준다. 알코올의 효과가 사라지는 한밤중이나 이른 새벽에 깨기도 한다. ❺ 밤에는 음식을 많이 먹지 말라. 가벼운 간식은 괜찮지만 많이 먹으면 소화불량으로 잠이 방해 받는다. 밤에 음료를 마시면 소변이 마려워 자주 깰 수 있다. ❻ 가능하다면 잠을 방해하는 약을 피하라. 현재 먹고 있는 약 중에 불면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 있는지 의사나 약사에게 물어보고, 있다면 낮이나 이른 저녁에 복용해도 되는지 알아본다. ❼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말라. 오후 늦게 자는 낮잠은 그날 밤잠을 뺏어간다. ❽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긴장을 풀어라. 하루 일정을 쉴 틈 없이 지나치게 많이 만들지 않는다. ❾ 잠자러 가기 전에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라. 욕조에서 나온 뒤 체온이 떨어지면 졸음이 잘 온다. ❿ 침실을 어둡고, 차갑게 하고, 전자기기를 치워라. 침실온도가 서늘하면 잠이 잘 온다. 침실에 TV, 컴퓨터, 휴대폰이 있으면 수면을 방해한다. 잠자려 할 때 시간에 신경쓰지 않도록 시계도 보이지 않게 돌려놓는다. ⓫ 적절히 햇빛을 쬐어라. 매일 적어도 30분 동안 실외에서 자연광을 받는다. 가능하다면 햇빛을 받으면서 일어나거나 아침에 아주 밝은 빛을 접한다. ⓬ 말뚝말뚝하다면 잠자리에 누워 있지 말라. 누웠는데 20분 넘게 잠이 안 오거나 머릿속이 복잡하다면 일어난다. 졸음이 올 때까지 긴장을 푸는 활동을 한다. 잠을 못 잘 것이라는 불안감이 잠을 더 못 자게 한다. ☹



간단한 생활 습관, 건강한 피부를 유지한다

여름철 피부질환의 치료 및 예방법



글. 김정수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피부과

고온다습하고 자외선이 강한 여름에는 진균 감염에 따른 무좀과 일광화상에 의한 피부질환이 생기기 쉽다

여름철은 덥고 습한 환경에 의해 세균, 진균 감염의 빈도가 증가하고 강렬한 자외선 노출에 의해 색소침착과 일광화상이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진균질환인 무좀 환자는 5월부터 늘기 시작해 7~8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다.

고온다습한 여름에 급증하는 무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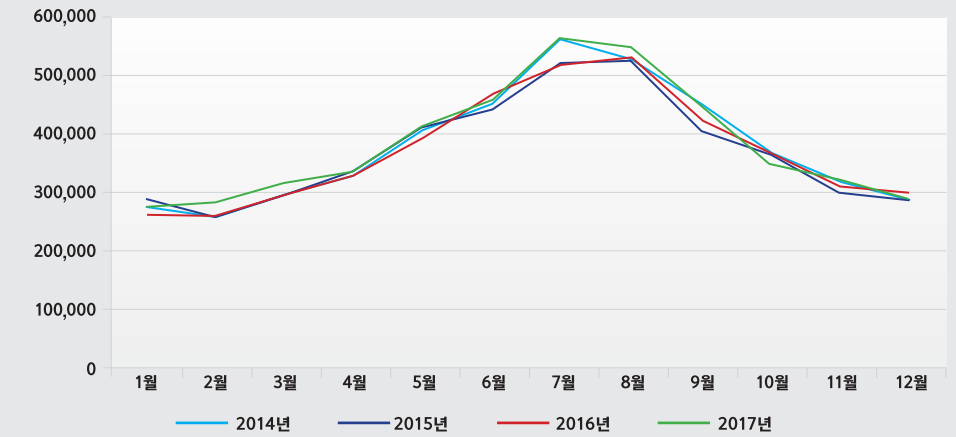
발무좀은 피부사상균이라고 하는 진균 감염으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진균은 고온다습한 환경을 좋아한다. 때문에 빗물과 땀으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고 기온이 높은 장마철에 무좀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무좀은 잘못된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치하면 무좀균의 증식으로 인해 병변이 더욱 악화되고 넓어지며 이차적인 세균 감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무좀 치료는 국소 항진균제를 1일 1~2회 도포하며 6~12주간 경구 항진균제의 복용이 필요하다. 치료는 질환 유형과 증정도, 환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생활습관으로는 발의 습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레인부츠나 스타킹 등은 최소화해서 사용하는 편이 좋다. 목욕을 한 후에는 발과 발가락 사이를 잘 말려야 하며, 면으로 된 흡수력이 있는 양말을 신어 깨끗하고 건조하게 관리해야 한다. 무좀은 전염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손톱깎이 등 손발톱 관리 도구를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무좀에 걸렸다면 발수건, 슬리퍼, 욕실 매트 등도 가족과 공유하지 않도록 한다.

자외선 노출에 따른 일광화상 및 색소침착

파장이 200~400nm인 자외선은 인간의 피부에 광생물학적 반응을 유발하는 광선이다. 이를 세분화하면, 제일 파장이 짧은 자외선 C(200~280nm)와 유리창에 의해 차단되는 중간파장 자외선

국내 무좀 월별 진료 인원(단위: 명)



B(280~320nm), 가장 긴 자외선인 자외선 A(320~400nm)로 나누어진다. 자외선 C는 오존층에 의해 제거된다. 지구상에 도달하는 자외선의 90% 이상이 자외선 A이며 자외선 B는 10% 이하이다. 따라서 우리의 피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역시 자외선 A와 B이다.

자외선에 피부가 직접 노출되면 일광화상 혹은 기미, 주근깨와 같은 색소 침착이 발생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며, 드물게는 피부암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광화상을 입을 경우,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른다. 심한 경우는 물집이 생기고 오한, 발열, 오심 등의 전신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홍반과 가벼운 부종 및 통증이 발생하는 정도는 경증으로, 냉찜질과 샤워 등으로 차갑게 하면 대개는 회복된다. 반면 홍반과 통증, 전신증상이 심한 중증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의 단기 투여, 진통제 복용 등이 필요하다.

자외선에 의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태양광선이 가장 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활동은 자제하는 편이 좋다. 외출 시에는 챙이 달린 모자를 쓰고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의 효능은 자외선 차단지수(Sun Protection Factor; SPF)로 표시한다. 이는 자외선 차단제 도포 후의 최소 홍반량을, 차단제를 도포하지 않은 상태의 최소 홍반량으로 나눈 값. 일반적으로 SPF 15 이상의 차단제를 쓰면 무난하다. 그러나 용기에 표시된 SPF 수치만큼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신에 약 40ml 정도의 양을 사용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한번 바르면 효과가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햇빛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 발라주고, 이후 2시간 간격으로 반복해서 다시 발라야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가 땀이나 물에 씻겨 나갈 수도 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는 광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도중에 차단제를 바른 부위의 피부가 심하게 가렵거나 발진이 생기면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

건강한 삶을 위한, 정확한 이정표를 제시한다

한양대학교병원, 건강전문채널 ‘Hihy 건강저장소’ 운영

정보 과잉 시대다. 미디어와 SNS를 통해 수많은 정보들이 쉴 새 없이 유통된다.
알짜 정보만큼 허위 정보도 수두룩하건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올바른 지식, 공신력 있는 정보가 더 중요해졌다. 한양대학교병원이 건강전문채널인
‘Hihy 건강저장소’를 운영하는 것도 그 때문.
환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글. 편집실



고령화 시대의 도래와 만성질환의 증가, 암과 같은 중증질환의 증가 등으로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병을 제대로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졌다. 모든 이들이 자신에 맞는 건강정보를 원하게 된 것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없는 정보들이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무분별하게 양산되고 SNS를 통해 쉴 새 없이 퍼져나간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이 덧붙여지는 일도 흔하다. 그 잘못된 정보가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전달된다. 만약, 특정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이 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어떨까. 믿고 따를 수 있는 올바른 정보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정보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외홍보팀이 운영하는 ‘Hihy 건강저장소’는 올바른 건강정보를 전하는 한양대학교병원 건강전문채널이다.

‘백세시대’를 대비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건강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진료와 수술, 연구, 강의 등으로 눈코 뜰 새가 없지만, 의료진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오직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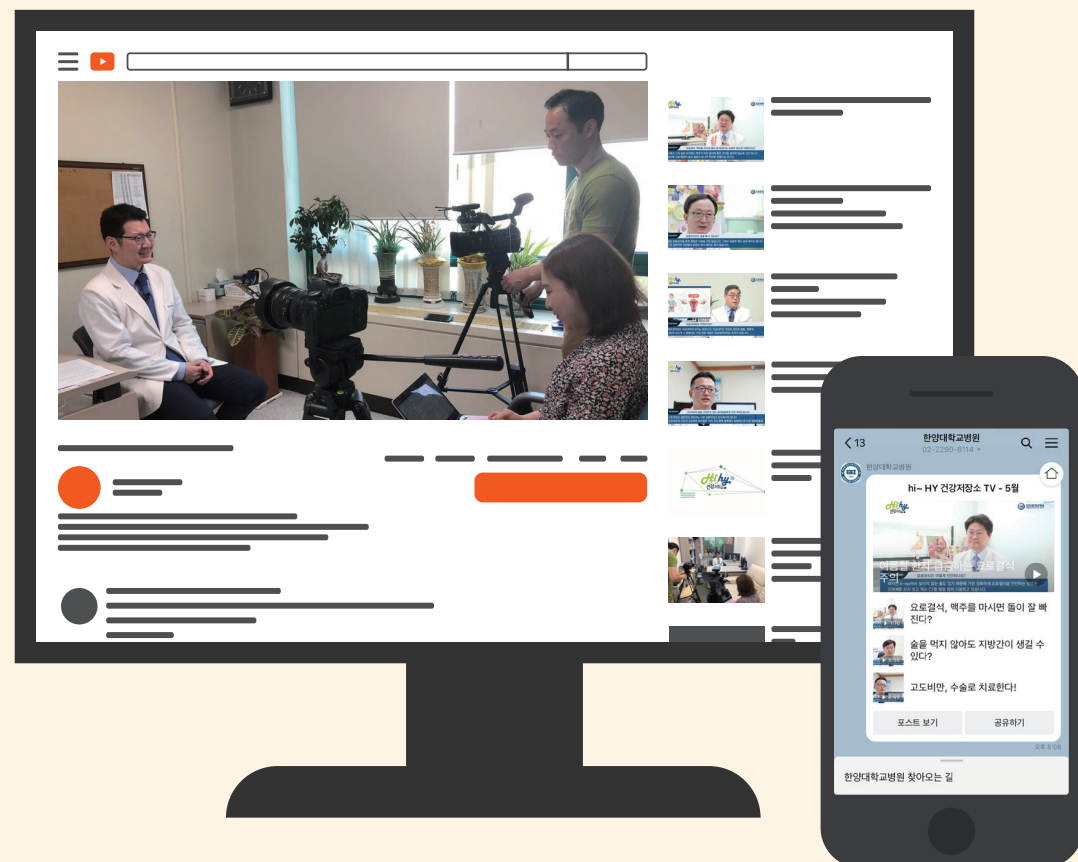
대외홍보팀은 연령이나 직업 형태, 개인적 선호에 따라 사용하는 디바이스와 채널이 다르기에,

PC와 모바일로 접근 가능한 채널 7개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페이스북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업로드되는 대부분의 정보는 한양대학교병원 의료진이 작성했거나 검수했고, 또한 직접 출연까지 하니 의심할 수 없는 건강정보채널인 셈이다.

무엇보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진료나 치료를 받은 환자들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추가된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환자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한양대학교병원을 추가할 경우, 개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치료(퇴원) 후에도 의료진으로부터 질환 관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Hihy 건강저장소’ 채널 운영과 관련해 이항락 대외협력실장은 “운영을 시작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꾸준히 구독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진료실에서 환자들의 반응도 좋다”며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Hihy 건강저장소’를 통해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개인별 맞춤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헬스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대외홍보팀 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역설적이게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찾기는 어려워졌다. 이처럼 변화하는 사회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건강한 삶을 수호하고자, 오늘도 한양대학교병원은 건강한 정보들을 만들고 또 전한다. 📺



한양대학교병원이 제공하는 건강정보가 필요하다면?

Hihy 건강저장소 채널 리스트



ALL CONTENTS

한양대학교의료원 매거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건강정보를 전달한다. 한양대학교병원 소식 및 의료진의 소식도 알 수 있다. 여러 진료과의 건강정보가 영상, 사진, 텍스트, 인포그래픽 등으로 소개되어 있다.



네이버 블로그
'Hihy 건강저장소'
<https://blog.naver.com/hyumc-p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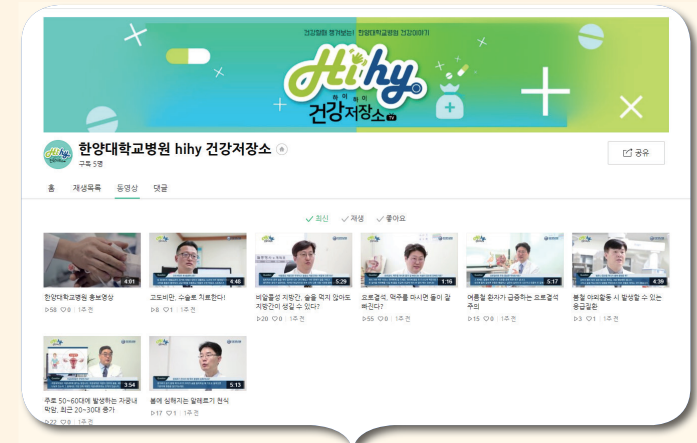
네이버 포스트
'Hihy 건강저장소'
<https://post.naver.com/hyumc-p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한양대학교병원'
http://pf.kakao.com/_WxgaRu



페이스북
'한양대학교의료원'
<https://www.facebook.com/hyumc/>



ONLY VIDEO

영상 콘텐츠를 통해 건강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각 영상은 해당 진료과의 전문가가 직접 출연하여 환자(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이야기들을 전한다.



네이버TV
'한양대학교병원 Hihy 건강저장소'
<https://tv.naver.com/hihy>



카카오TV
'한양대학교병원 하이하이 건강저장소TV'
<https://tv.kakao.com/channel/3120794>



YouTube
'한양대학교의료원(HYUMC)'
<https://www.youtube.com/user/HYUnivMedical>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각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픈, 예사롭지 않은 통증의 신호

팝스타 레이디 가가와 섬유근통

독특한 메이크업과 난해한 의상만큼 독보적인 음악을 선보이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팝스타 레이디 가가.
인기 최정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보였던 그녀 역시도 정신적, 신체적 고통으로 힘들어 했는데
그중 그녀를 가장 옥죄었던 것은 섬유근통이었다.

정리, 편집실

F i b r o m y a l g i a

2008년 싱글 앨범 <Just Dance>를 들고 데뷔해 ‘Pocker Face’, ‘Red Romance’, ‘Born This Way’ 등을 잇달아 히트시킨 글로벌 팝스타 레이디 가가(Lady Gaga). 노래뿐만 아니라 <스타 이즈 본>, <씬 시티: 다크 히어로의 부활> 등 영화에도 출연하며 배우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155cm의 작은 키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선 것이다.

그녀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늘 양면적이다. 남들과 다른 해괴한 옷차림도 한 몫 하긴 했지만, 그보다는 종교, 돈, 마약, 해방 등과 같은, 논란이 많은 주제를 가사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뛰어난 뮤지션으로 평가 받았다. 하지만 세 번째 정규 음반인 <Artpop>에 논란이 심해지며 대중의 외면을 받기도 했다.

타인의 평가에 따라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레이디 가가의 삶은 <레이디 가가 155cm의 도발>(크리스 마우카벨 감독)이라는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다.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8개월가량 레이디 가가와 함께 생활했던 감독은 영상을 통해, 아티스트가 아닌 개인으로서 그녀가 느끼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조명했다.

스타라는 자리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정신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했지만 그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건 ‘섬유근통’이었다. 그녀의

아픔은 다큐멘터를 통해 대중에게 전해졌다.

다큐멘터리가 개봉했을 무렵, 브라질 공연을 앞둔 레이디 가가가 돌연 예정된 무대를 취소했다. 섬유근통의 증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통에 몸서리치는 아픔을 전했다.

“병원에 이송되었어요. 제가 겪는 고통은 단순하거나 일시적인, 일상적으로 겪는 통증이 아니라 정말 심각한 통증입니다. 당장 무대에 설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 안타깝지만, 지금은 제 몸을 보살펴야 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로 무대에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후 몸 상태가 호전된 그녀는 새로운 앨범을 들고 팬들을 찾았으나, 유럽 투어를 앞두고 다시 심해진 증상 때문에 또 한번 공연을 취소해야 했다. 그녀의 질병을 알고 있는 팬들은 그저 그녀가 건강하기를 응원하고 있지만, 세계적인 스타가 겪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좀처럼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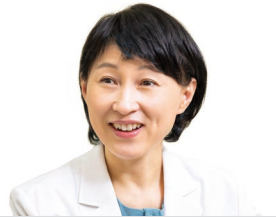
한편,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얼굴을 알린 배우 박환희 역시 자신이 섬유근통을 앓고 있음을 고백했다. 그녀는 꾸준한 운동과 치료를 통해 질환을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을 찾으려는 본인의 노력을 SNS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



기저질환 치료와 병행해,
약물과 운동으로 관리한다

이혜순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류마티스내과



섬유근통의 진단과 치료

섬유근통의 진단은 2010년 새로 개정된 미국류마티스학회의 진단기준을 사용한다. 설문지 형태의 진단기준 외에도 감별진단과 기저질환을 찾기 위한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게 된다. 다른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도 많지만 류마티스관절염, 루푸스, 강직성척추염, 쇼그렌 증후군, 베체트병, 골관절염 등 만성 류마티스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선 섬유근통이 흔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환자는 기저질환과 함께 섬유근통을 치료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면장애, 우울증, 불안증 등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이들 질환의 치료를 병행하거나 선행해야 한다.

치료는 운동과 같은 비약물치료와 약물치료로 이루어진다. 운동은 걷기, 수영, 아쿠아로빅 등 저강도 유산소 운동이 권장되며 일주일에 2~3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강하거나 오래 운동을 하는 경우,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무리하게 일과 운동을 할 경우엔 통증이 더 심해지므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점진적이고 꾸준하게 해야 한다. 또 약물치료로 증상을 어느 정도 호전시킨 후에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 외에 요가, 타이치(태극권), 기공과 같은 명상운동 등도 권장된다.

약물치료는 환자들의 통증조절기능 이상을 교정하면 통증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장기간 사용해야 하므로 최소한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극심한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게 되면 이후 약을 중단하기가 매우 힘들게 되므로 신중히 시작해야 한다. 통증이 잘 조절되던 환자가 갑자기 악화될 수도 있는데, 악화요인으로는 스트레스와 다양한 근골격 통증이 있다. 근골격 통증은 대부분 교정이 가능하므로 악화요인이 된다면 주사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섬유근통은 원인과 치료법이 명확한 질환이 아니다. 따라서 정확한 진단, 동반질환 및 악화요인 분석, 꾸준한 치료를 통해 통증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섬유근통의 증상과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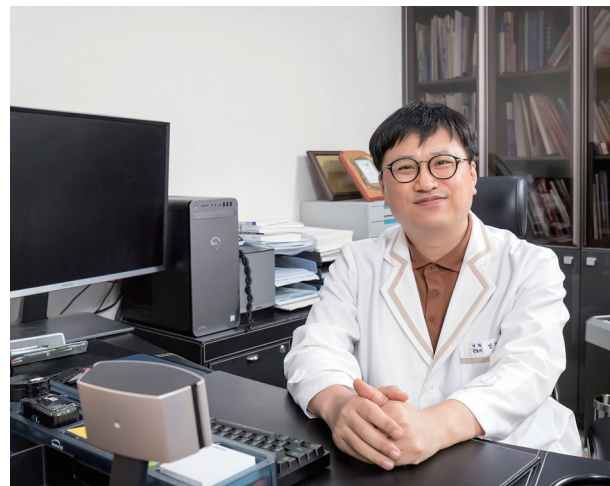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다양한 통증을 경험한다. 대부분의 통증은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도 전신이 아픈 병이 있다. 섬유근통(섬유근육통)이라는 병이 그것이다. 전 인구의 약 2%가 섬유근통을 앓고 있는데, 섬유근통의 통증은 만성적인 전신 통증이다. 척추를 포함해 사지의 좌우, 상하에 걸쳐 통증이 있다. 통증 외에도 피로, 수면장애,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지 않음, 기억력 및 집중력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또 관절의 경직(주로 아침), 사지가 시리고 저린 증상, 손발의 부종, 다양한 종류의 두통(편두통, 긴장두통), 과민성대장증후군, 요로증상 등도 흔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증상이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의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많은 검사에서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이상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재 상용화된 검사법으로는 찾기 못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기공명기능뇌영상(functional MRI) 등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통해서 섬유근통 환자의 뇌 기능, 즉 통증을 매개하고 억제하는 조절 기능이 감소되어 있다는 것은 밝혀져 있다. 이러한 중추신경계통의 통증조절 이상 외에도 유전적 소인, 수면장애, 자율신경이상, 내분비호르몬, 정신과적 문제(우울증, 불안증) 등이 섬유근통을 일으키는 기전으로 설명되고 있다.

“안 괜찮아요, 검사 꼭 받으세요!”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협력병원 · 강내과의원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환자를 기필코 다시 ‘이 세상’으로 끌고 오려고 최선을 다한다.
늦기 전에 검사 받고 치료하라고 목이 쉬도록 잔소리해도 꿈쩍 안 하는 어르신들 덕분에 그의 전투력도 크게 늘었다.
오지랖 넓은 주치의 곁에서, 환자들은 다시 건강해질 것이다.

글. 윤진아 사진. 김지원



동네 내과의 ‘이유 있는’ 장비병

한국인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이다. 여타 질환은 운동과 식이요법, 약물요법으로 어느 정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 3대 질환은 조기 발견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건강검진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강남용 원장의 ‘장비병’도 그 때문에 발동했다.

“2001년, 공기 맑고 사람냄새 물씬 나는 이곳에 병원을 열 때의 초심을 기억합니다. 당시만 해도 검사와 수술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진료는 대부분 대학병원이 담당했고, 개원의들은 단순 질환만을 취급하는 구조였죠. 그런데 치료시기를 놓치기 전에 제대로 진단해줄 의사가 환자 곁에 가깝게 있어야 하거든요. 가벼운 증상의 감기 환자는 물론 심각한 악성 종양 환자까지, 정확한 진단과 진료의 성과가 차곡차곡 쌓이면서 지역 주민의 신뢰를 얻은 것 같아요.”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병원이 되자!’는 사명감으로 정진해온 지난 20여 년. 강내과의원은 동네에서도 얼마든지 전문적인 검사와 관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남용(내과) 원장과 권선영(가정의학과) 원장은 대학병원급 의료장비로 일반 검진과 5대암 검진, 진단에서 치료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한다. 24시간 심전도검사, 자율신경검사 장비 등 개원가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장비들도 대거 보유했다. 두 명의 물리치료사가 상주하는 물리치료실, 통증과 비만을 특수장비로 관리하는 통증·비만관리실도 있다. 합리적인 예약 시스템, 짧은 대기시간도 강내과의원의 자랑이다. 미처 예약을 못 했어도 정 위급한 상황이다 싶으면, 아침 일찍 내원해 의료진과 상담을 거쳐 예약신청란 맨 위에 올려주기도 한다. “이런 유연성 정도는 가져야 동네병원 아니겠느냐”는 강남용 원장의 너스레에 미소가 고인다. 첨단 의술과 아날로그적 정(情)이 절묘하게 맞물려 이웃의 삶의 질을 바로 세우는 참이다.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14, 3층
문의 031-521-7577



“요즘 엑셀로 그간의 진료기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총 500여 명의 암환자와 500여 명의 특수 질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했더군요. 어찌 보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행로가 바뀐 분들인데, 힘들지만 의사 되길 잘했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든든한 파트너, 한양대학교구리병원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일수록 환자와 의사가 건강 문제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강남용 원장은 시간을 쪼개어 동네주민들의 온갖 건강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가져온 검사 결과지를 해석해주기도 하고, 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내원한 사람에게는 ‘이 정도로 약 먹을 필요 없다’며 돌려보내기도 한다. 그의 오지랖 덕분에 인생이 바뀐 환자는 셀 수 없이 많다.

“건강검진이라는 게 대개 이렇다 할 증상이 없을 때 하는 건데, 환자 입장에서는 의문을 품기도 하고 완강하게 거부하기도 하죠. 두어 달 전, 10년 넘게 내시경 검사를 안 했다는 73세 어르신이 감기 때문에 내원하셨어요. 사실 10년이면 내시경을 5번은 했어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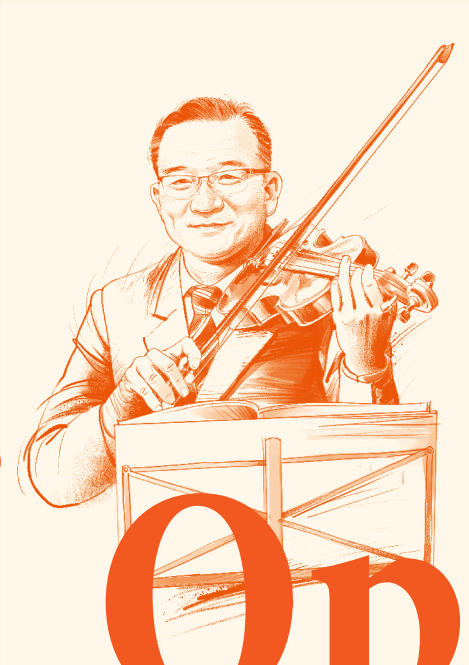
기간이거든요. 제가 박박 우겨서 겨우 검사를 받으셨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암세포가 발견됐어요. 초기 위암이라서 지난달에 수술하고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전신 마취가 필요한 큰 수술이거나 고도의 협진이 요구되는 복잡한 수술일 경우엔 한양대학교구리병원으로 연계해 신속한 치료를 꾀한다.

“3년 전 한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병원을 찾았는데, 뇌출혈이 의심되는 응급상황이었어요. 서둘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응급실로 전원한 덕에 늦지 않게 병인을 발견할 수 있었죠. 혈관 세 개가 다 막힌 상황이라 급히 수술해야 하는데, 당장 쓸 수 있는 수술방이 없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에서 타 병원 연계까지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줬어요. 근처 병원은 물론 부천까지요. 덕분에 그 환자는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습니다. 지척에 있는 또 한 명의 주치의 덕분에 환자들도 저도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소화기내과 은창수 교수님을 비롯해, 심장내과, 류마티스내과 등등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모든 의료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믿음직한 동반자 한양대학교구리병원과 함께 ‘환자 최우선’이라는 강내과의원의 철학을 멈추지 않고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명작을 정교한 감정 표현으로 각색한 세미오페라

Dr. Opera



헨리 퍼셀 세미오페라 <요정 여왕>

Henry Purcell Semi-Opera <The Fairy queen>

<요정 여왕>은 어느 무명작가가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을 각색한 대본에, 퍼셀이 대사 사이에 음악을 넣은 세미오페라 작품이다. 그가 당시 영국인들의 취향에 맞게 1692년 작곡하여 그해 런던의 퀸시어터에서 초연되었다. 세미오페라는 화려한 볼거리와 재미를 위한 음악적 여흥이라 볼 수 있다. 연극의 남녀 주인공은 대개 노래를 부르지 않고 요정, 마녀, 귀신같은 부수적인 등장인물이나 연인들의 사랑 장면에서만 음악을 넣은 영국 전통의 ‘마스크(Masque)’ 형식이다. 퍼셀은 셰익스피어 원작에 그리스 신화를 가미하여 음악적 요소가 초자연주의적 등장인물들에 알맞도록 표현하였다. 이 작품에는 많은 신과 정령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춤은 훗날 가면극의

기본이 된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장치에 제작비가 엄청나게 드는 작품으로 초연 이후 제작자가 파산하기까지 했다. 퍼셀이 등장하기 전까지 영국은 음악의 변방국이었다. 음악의 거장들을 배출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에 비해 내세울 만한 작곡가가 없었다. 이런 척박한 땅에 한 줄기 빛을 비춘 작곡가였던 그의 등장으로 영국은 비로소 음악사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 여러 장르 중 특히 관심을 가진 분야는 성악으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등 왕실 행사와 <메리 여왕의 장례> 등 왕실 교회 예배를 위한 합창 음악에서부터 <요정 여왕> 이외에도 <디도와 아이네이아스>, <인도의 여왕> 등 오페라와 가곡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악곡을 썼다. 그의

성악곡은 자연스럽게 말하듯이 구사하는 영어 가사와 감동적인 선율, 이탈리아의 영향을 받은 밝고 화사한 화음과 정교한 감정 표현이 특징이다.

이 작품은 옛 아테네를 배경으로 셰익스피어의 <한여름 밤의 꿈>에서의 등장인물과 같은 요정들(오베론, 요정 여왕 티타니아, 퍼크 등), 엇갈린 사랑에 빠진 남녀 두 쌍(헤르미아와 리산더, 헬레나와 데메트리우스), 티시어스 공작과 히폴리타 여왕과의 결혼 축하 연극을 준비하는 당나귀로 변하는 보텀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서로 얹히게 만들어 놓고 매듭을 풀어 나간다.


제1막 에게우스 왕은 딸 헤르미아와 함께 아테네의 테세우스 대공을 방문한다. 헤르미아는 리산더와 결혼하고자 한다. 그러나 왕은 딸을 좋아하는 데메트리우스와 결혼할 것을 바란다. 이 해결을 위해 테세우스를 찾아온 것이다. 아테네 법에 따르면 딸은 아버지가 정해준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그 외의 선택은 신전의 여사제가 되어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 테세우스 대공은 만인이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의무라며 며칠 안에 결정을 하라고 선언한다. 그런데 데메트리우스는 헤르미아의 친구인 헬레나와 사귀었다가 헤어졌는데 헬레나는 여전히 그를 사랑한다. 한편 헤르미아와 리산더는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결혼하기로 결심한다. 헤르미아는 헬레나를 만나 데메트리우스가 자신을 포기토록 도와달라고 당부한 후 리산더와 함께 숲으로 도망가자 데메트리우스가 두 사람을 추격하고 그 뒤를 헬레나가 쫓아간다.

제2막 요정의 나라 오베론 왕은 시종인 퍼크에게 마법의 꽃을 찾아오도록 지시한다. 퍼크는 팬지꽃을 가져온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가 독신으로 살겠다고 선포하자 큐피드가 여왕에게 화살을 쏘려다 팬지꽃을 맞힌다. 그래서 팬지꽃의 액을 잠들어 있는 사람의 눈에 떨어트리면 깨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 오베론 왕은 이 액을 잠자고 있는 티타니아 왕비의 눈에 떨어트린다. 오베론 왕은 퍼크에게 이 사랑의 묘약을 데메트리우스의 눈에도 떨어트리라고 한다. 숲속에서 헤르미아와 리산더가 잠에 빠져있는데 퍼크는 리산더를 데메트리우스로 잘못 알고 그의 눈에 액을 떨어트린다. 마침 헬레나가 지나가다가 리산더를 보고 혹시 상처를 입었는지 걱정이 되어 깨우자 깨어난 리산더는 헬레나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다.

제3막 사람들이 결혼식을 위한 연극공연을 위해 연습하고 있는데 퍼크가 나타나 당나귀 가면을 보텀에게 씌어준다. 마침 요정 여왕 티타니아가 잠에서 깨어나 보텀을 보고 사랑에 빠진다. 한편 데메트리우스와 리산더는 헬레나와 헤르미아를 만난다. 이를 본 오베론 왕은 퍼크에게 그들을 떼어 놓도록 지시한다. 퍼크가 이들의 눈에 사랑의 묘약을 다시 떨어트리고 오베론 왕은 해독제를 리산더와 티타니아의 눈에 떨어트리자 데메트리우스가 헬레나를 보자 사랑에 빠진다.

제4막 이 오페라의 하이라이트인 오베론 왕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한 마스크 형식의 파티가 열린다. 태양신 포이보스가 구름 속에서 등장

해서 노래를 부른 뒤 사계절을 상징하는 인물이 차례로 나와 바이올린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

제5막 테세우스 대공은 모두 제 짝을 찾아 사랑하게 된 것을 보자 행복하다. 인간들은 한 여름 밤에 일어난 사건에서 어느 것이 현실이고 꿈인지 궁금해 한다. 결혼식 중 사람들이 연극을 공연하고 테세우스 대공과 하객들은 모두 진지하게 공연했다하며 서로를 치하하며 막이 내린다. 

들을 만한 Album

르 콩세르 드 나시옹
(Alia vox, 2009)
조르디 사발(지휘)



레 아르 플로리상트
(Harmonia Mundi, 2011)
윌리엄 크리스티(지휘)



잉글리시 바로크 솔리스트
(Archiv, 1982)
존 엘리엇 가디너(지휘)



암스테르담 바로크 오케스트라
(Erato, 1995)
톤 쿠프만(지휘)



글. **오재원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오재원 교수는 미국 존스홉킨스 앙상블과 스탠포드 팔로 알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제1바이올린으로 활약한 바 있다.
이러한 고전음악에 대한 사랑을 환자를 비롯한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필하모니아의 사계>라는 클래식 안내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부적응자들을 그리는 두 가지 방식

Dr. Movie

스포일러 방지를 간곡히 원했던 최근 영화 두 편에 대하여

‘스포일러(Spoiler)’는 사전적으로 영화, 소설, 애니메이션 등의 줄거리나 내용을 예비 관객이나 독자 특히 네티즌들에게 미리 밝히는 행위 혹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소위 ‘망쳐버리는 사람’ 또는 그 행위’라는 의미를 지니며 잠재 관객에게는 흥을 깨는 훼방꾼이자 작가에게는 잠재적 관객 수를 잠식하여 흥행을 떨어뜨리는 원망스러운 존재이기도 하다. 최고의 반전 영화로 불리는 <식스 센스>에서 그가 실은 사람이 아닌 유령이었다는 사실에 영화도 보기 전에 멍해졌고, 고2 야간자율학습시간에 나와 재개봉관(천장이 뚫려 운치있는 빗소리가 들렸고 게이 아저씨가 활보했었다)에서 보았던 <대부>는 등장인물이 나올 때마다 술 취한 관객이 담배연기를 풍기며 “저 X 곧 죽어”라는 친절하기 그지없는 해설을 할 때 살의를 느낄 정도였다(옛날에는 담배 피도 되는 극장이 있었다). 최근 압도적인 관객몰이를 한 두 편의 영화는 모두 스포일러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절대 줄거리를 발설하지 말 것을 관객에게 신신당부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지난 11년 간 숨가쁘게 달려왔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를 종결짓는 대단원의 종착점이자 또 하나의 시발점이며, 어지럽게 널브러졌던 큐브를 다시 맞춘, 꼼꼼히 기록되었던 역사다. 영화는 이전 <인피니티 워>에서 등장하지도 않았던 호크아이 가족의 고즈넉한 오후에서 ‘문득’ 시작한다. 곧 그를 제외한 온

가족이 소멸되고 순간 혼란스러워진다. 이 장면은 플래시 백으로 볼 수 없으니 굳이 말하자면 새로운 장면이자 과거의 미래형인 셈. 그리고 악당 타노스는 목이 잘린 채 금방 죽어버린다. 3시간짜리 영화인데 벌써 악역이 사라지다니, 또다시 헛갈리게 된다. 그는 죽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암울하고 치유가 필요한 우울증 환자로 가득하다. 다시 영화적 마법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돌이켜보면 어벤져스의 히어로들은 모두 흠결이 있던 부적응자들이었다. 아이언맨은 마치 내일이 없는 삶처럼 인생을 탕진하다가 고장난 자신을 고치면서 세상도 수리가 필요하다고 깨닫게 된다. 오딘의 아들 토르 역시 아스가르드의 왕이 되기엔 부족한 자질을 가졌지만 동생 로키와의 갈등을 봉합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각하게 된다. 캡틴 아메리카도 허약한 자신의 신체를 개조하고 피에로의 삶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일의 비밀조직인 하이드라와 맞서게 된다. 헐크는? 두말할 나위 없다. 스파이더맨이 자신의 삼촌에게 들었던 ‘큰 힘에는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공동체의 이상향 구축이란 미국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목표지점에 다다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MCU를 지탱했던 각각의 히어로들의 사명은 이전 서부극의 원형을 그대로 좇아간다.

엔트맨의 아이디어로 촉발된 양자영역을 통해 특정 시점의 과거로 회귀하여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자는 절박한 시대적 사명으로 뚝뚝 뚫힌

어벤져스는 인피니트 스톤 6개를 모두 획득할 수 있었지만 결국 죽기 이전의 타노스의 계략에 의해 엄청난 대전투가 벌어지고 만다. 타노스는 줄곧 ‘자기라는 존재의 필연’에 대하여 역설하지만 이는 2차 대전 당시 ‘역사 발전의 필연’을 부르짖으며 홀로코스트를 획책했던 히틀러의 모습과 묘하게 겹쳐진다. 그래서일까 흥망을 가르는 절대절명의 전투는 외견상으로는 <반지의 제왕> 중 실새 없이 성벽으로 달려드는 우르크하이와 맞서는 아라곤과 레굴라스로 대변되는 헬름협곡 전투 장면을 생각나게 하고, 최근 대단원의 막을 내린 <왕좌의 게임> 시즌 8에서 죽은 자들과의 전쟁에서 하나씩 스러져가는 스타크 군대들, 그리고 아리아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백귀가 떠오른다. 그러나 나에게 히틀러의 자살 전 며칠을 그려낸 <다운폴>에서 처절히 망가지던 브루노 간츠의 모습이 타노스와 오버랩이 되는 것을 떨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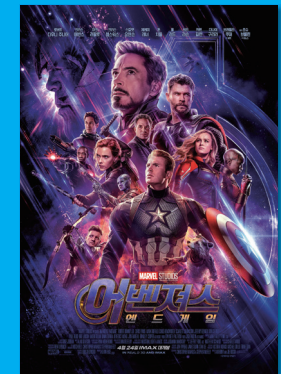
감독이 직접 SNS에 구구절절 스포일러 방지를 부탁했던 또 하나의 영화는 <기생충>이다. 감독 스스로가 장르영화를 표방하였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하고 영화관이 밝아져도 머리가 뒤죽박죽인 것은 영화적 소양의 부족 때문만은 아닐 것으로 자위해 본다. 영화의 줄거리는 의외로 단순하지만, 잔재미를 추구하는 감독의 디테일 과잉으로 인해 단편적으로 요약하기는 힘들다. 대략 냄새와 순진함(혹은 부자), 지하실(혹은 반지하, 혹은 내려감), 비(혹은 물) 정도가 주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상류층과 하위계급은 서로 체취를 맡을 정도의 물리적인 근거리에 위치하지 못할 것이지만, 이선균의 아들은 송강호 가족들의 체취로 그들이 동질한 집단임을 확인해 낸다. 지하실에 수 년간 은신해있던 근세가 밝디밝은 대낮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로 꽉 찬 야외정원으로 나와 광란의 칼부림을 하다가 쓰러지자 병원으로 아들을 데려가기 위해 주검을 옆으로 들추고 자동차 열쇠를 찾던 이선균의 핑그린 미간에 폭발한 기택의 분노의 칼부림은 역시 냄새에 대한 예민한 반응이었다.

“부자인데다가 착하기까지 해.” 부자여서 악할 필요가 없다는 건지, 착하게 살다 보니 부자가 되었다는 건지는 알 수 없다. 계급 투쟁의 선상에서 보자면 부자는 그 이면에 악한 본성이 있어야 하지만 감독의 시선은 마이바흐 승용차를 타는 상식적이고도 무난한 부자를 그려내는데 그친다. 그러나 그들의 인자함은 상대적 약자가 오직 선을 넘지 않을 때 베풀어진다. 그런 점에서 권력에 일방적으로 유린되던 서민의 억울함이 절절하던 전작 <괴물>, 오직 직진하여 우등칸의 일등시민을 무찌르고 권력을 쟁취하려던 하층계급의 폭도를 그린 <설국열차>에 비해서는 많이 유순해졌다.

과외선생이 되기 위해 좁디 좁은 길을 끊임없이 올라가던 가짜 대학생 기우의 극세사 다리와 저택 지하실에서의 대소동 이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계속 내려가던 기택 일가를 감싸던 습습한 기운은 이들이 사는 반지하 방이 세상과는 반쯤 열린 창문으로만 소통되는, 땅속으로 침잠해버린, 때로는 소독약으로 세탁이 필요한 밀바닥이었음을 일깨워준다. 이 점에서 영화는 <델리카트스 사람들, 1991>의 기괴함을 닮아 있다. 인육을 먹는게 당연시되어 버린 시대에서 사랑을 얻고,

끓주림에 지친 지상세계 사람들에게 잡아 먹히지 않기 위해 지하세계에 사는 지하인간들과 동맹하는 주인공, 모든 악의 근원이었던 푸줏간 주인이 죽자 평화로운 첼로 이중주를 선보이는 두 주인공. <기생충>에서 퍼붓던 역수 같은 비와 <델리카트스>에서 목욕탕에 가득 채웠던 물이 쏟아지며 고기에 눈이 먼 사람들을 단죄하던 물의 이미지와 극단적인 빛과 어둠의 이미지는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묘한 매개체가 된다. 위의 두 영화는 모두 죽음(임박한 죽음)으로 일단락된다. 토니 스타크는 대의를 위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받아 더 이상 치즈버거를 먹지 못하게 되었고, 캡틴 아메리카는 불멸의 존재를 부정하고 가장 행복했던 과거로 회귀하여 연인과의 못다 이룬 약속을 지킨 후 백발의 노인이 되어 만족스러운 미소를 띤다. 정원의 칼부림으로 죽게 된 기정과 동익, 그리고 근세, 그 이전 지하실에서 죽게 된 문광의 메시지는 뉴욕 치 않은 하층민의 고단한 삶(뛰어야 버릇이다)을 살짝 보여준 것이라면 지나칠려나? 어쨌거나 이 글이 나올 때쯤이면 누가 죽었는지에 대한 스포일러 방지는 시효가 만료했을 터이니 안심하고 적어본다. 🍿

볼 만한 MOVIE



어벤져스: 엔드게임(2019)

안소니 루소, 조 루소(감독),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아이언맨),
크리스 에반스(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험스워스(토르),
스칼렛 요한슨(블랙 위도우)



기생충(2019)

봉준호(감독)
송강호(기택),
이선균(동익),
조여정(연교),
최우식(기우),
박소담(기정)



글. 이형중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이형중 교수는 기사를 꿈꾸던 학창시절의 재능과 영화에 대한 사랑을 더해 '영화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다. 그의 글이 깊이 있으면서도 쉽게 읽히는 까닭은 해박한 영화 관련 지식을 풀어내는 내공은 물론 대중영화와 예술영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시각 덕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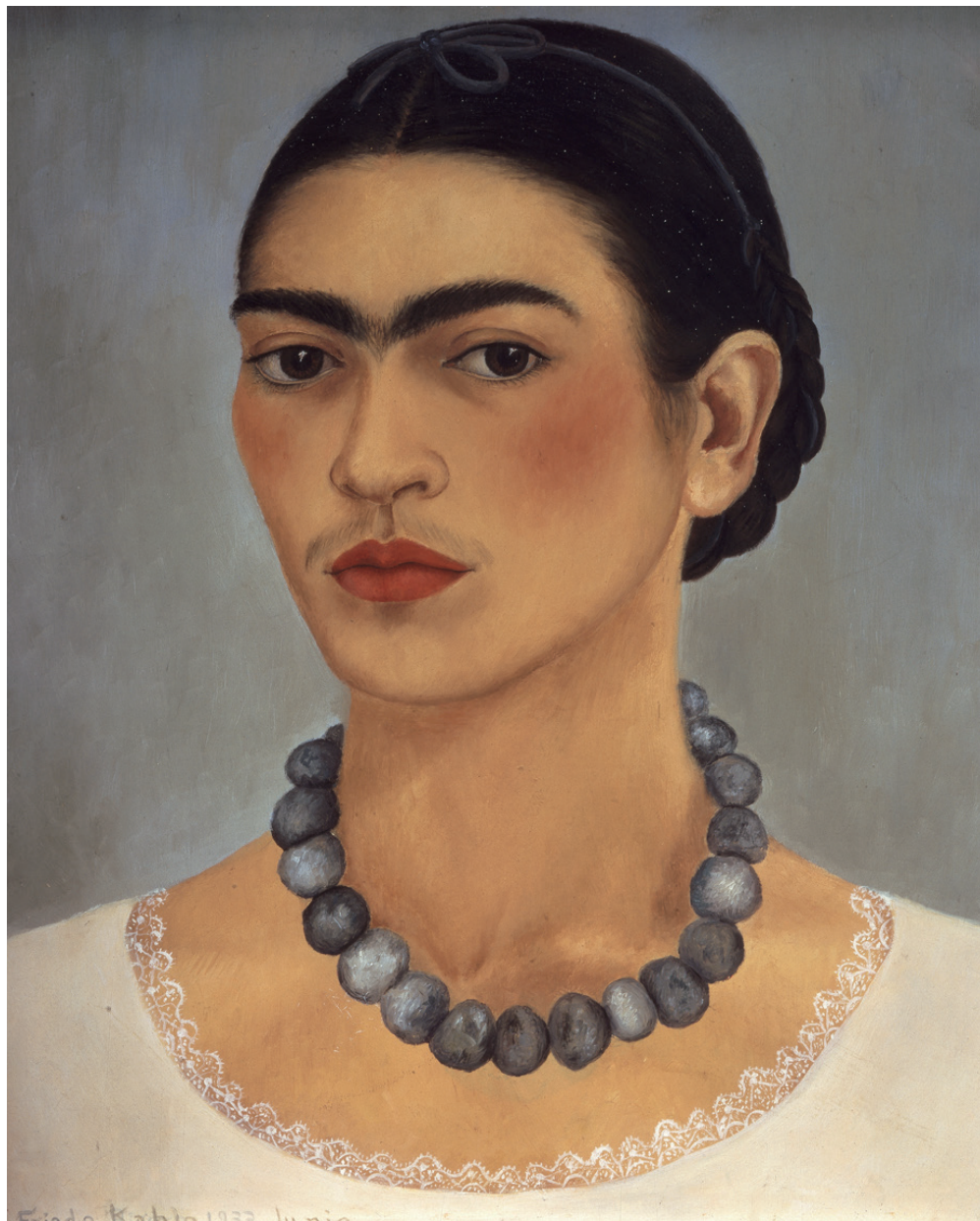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멕시코의 자랑

프리다 칼로와 척수손상



글. 류제일 교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신경외과

프리다 칼로는 어릴적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와 18세 때 당한 척수손상으로
지독한 후유증을 앓고 살며, 자신이 느끼는 고통을 예술로 표현했다. 초현실주의, 상징주의 그리고
멕시코의 색을 원시적이면서도 화려하게 그려낸 20세기 최고의 화가 중 한 명이다.



Frida Kahlo de Rivera



척수손상은 척추 및 척수에 가해진 외상에 따라 자율신경기능에 이상이 발생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심각한 후유 장애가 일어나는 질환이다. 대개 젊고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발생 빈도가 잦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 출신의 화가 프리다 칼로(1907~1954)는 자신이 느끼는 수많은 고통과 절망을 오브제로 작품을 완성했다. 그녀의 일생을 다룬 영화에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온다. “일생 동안 나는 심각한 사고를 두 번 당했다. 하나는 18살 때 나를 부스러뜨린 전차 사고이고 두 번째 사고는 바로 디에고다. 두 사고를 비교하면 디에고가 더 끔찍했다.” 프리다의 남편인 디에고 리베라는 멕시코 미술계의 거장이자 여성 편력이 심한 이슈메이커였다.

질병이 만든 회색빛 유년

프리다 칼로는 헝가리게 유대인 혈통으로 멕시코 혁명 3년 전인 1907년 7월, 6일 멕시코 시티 근교에서 태어났다. 프리다의 엄마는 셋째인 그녀를 낳은 후 병에 걸렸다. 때문에 프리다는 엄마 대신 유모의 젖을 먹고 자랐는데 이러한 경험은 그녀 자신이 스스로를 멕시코 인이라고 여기는 정체성의 근거가 되었다. 1937년작인 <유모와 나>를 보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프리다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1913년, 6살에 척추성 소아마비를 앓고 큰 후유증에 시달렸다. 가는 오른쪽 다리를 가리기 위해 여러 켄레의 양말을 겹겹이 신은 채 오른쪽 굽이 높은 신발을 신었다. 또 다리를 가리고자 긴 치마로 된 멕시코 의상을 자주 입기도 했다. 이후 자전거, 롤러 스케이트, 수영, 복싱, 레슬링 등 다양한 운동을 하며 재활 치료를 했다. 질병이 계기가 되어 또래들과 달리 성숙하고 우울한 내면을 갖게 되었지만, 겉으로는 더욱 천방지축으로 행동했다.

멕시코 수도 중앙에 위치해 있던 국립예비학교는 당시 멕시코 최초의 교육기관이었다. 혁명 이후 행동주의, 개혁주의가 학교를 지배했고 그러한 분위기 덕분에 그 해 처음으로 여학생 입학이 허용되었다. 그 해 프리다도 입학을 했다. 전교생 2,000명 중 여학생은 35명에 불과했다.

척수손상, 프리다의 운명을 바꾸다

1925년, 프리다의 운명을 바꾼 사고가 일어났다. 그녀가 타고 있던 버스가 전차와 충돌하고 만 것. 사고로 인해 프리다의 왼쪽 다리 11곳이 골절되었고 오른쪽이 탈골되었으며 요추, 골반, 쇄골 등이 골절되었고 갈비뼈도 부러졌다. 큰 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 하반신 마비라는 고통이 따라다녔다. 평생 35번의 수술을 받았는데 그 중 소아마비와 사고의 여파로 인한 7번의 척추 수술도 포함되어 있다. 또 사고 당시 부러진 철근이 그녀의 허리를 관통한 탓에 자궁이 손상되어 생리 불순에 시달렸으며 아이를 간절히 원했음에도 유산만 세 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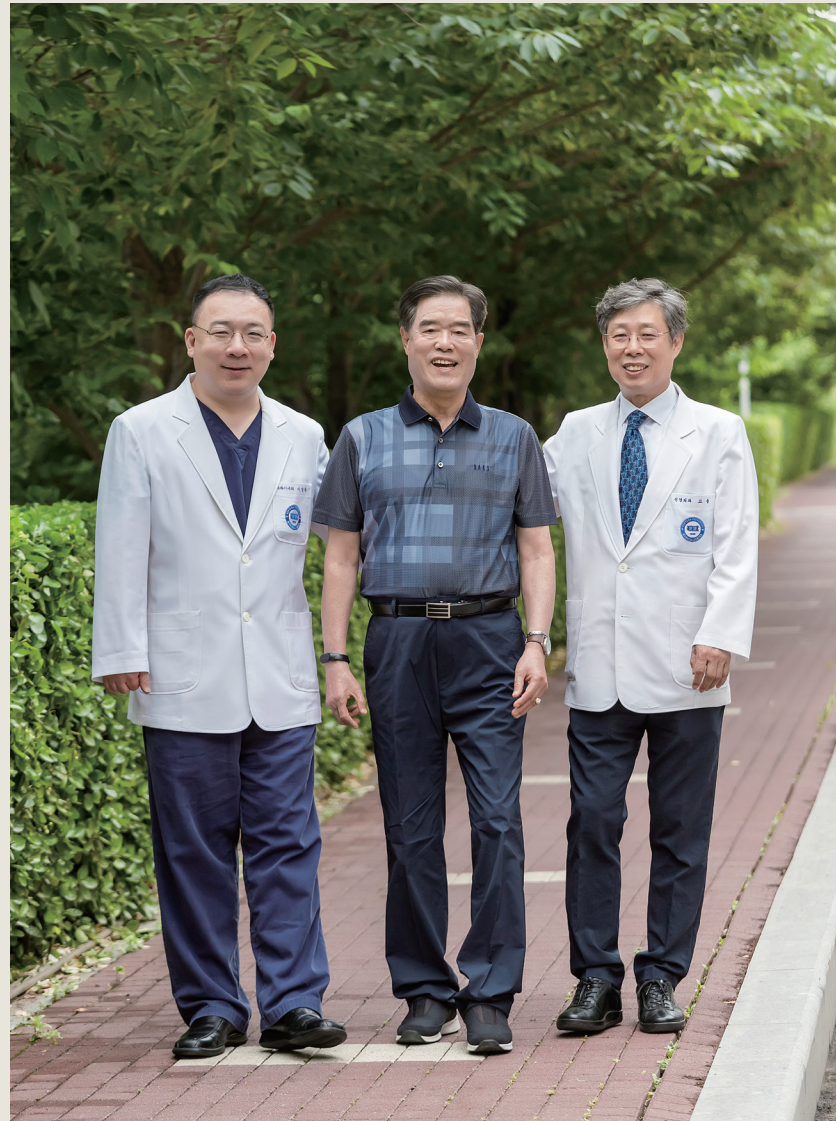
프리다는 자신의 고통을 그림으로 표현했다. 그녀의 작품은 명백한 초현실주의였으나 그녀 자신은 초현실주의로 분류되기를 거부했다. 자신은 그림 속에 병마와 싸운 고통, 남편으로부터 입은 상처들을 반영했으며 유럽의 모더니즘이 아니라 멕시코의 전통에 근간을 두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당대 전문가와 대중들은 그녀의 표현법이 비사실적이라는 점에서 그녀를 초현실주의 화가로 분류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린 지 12년만에 전시를 열었다. 1938년 멕시코시티 대학 갤러리의 그룹전이였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첫 공식 경력이 되었다. 이후 루브르 박물관이 그녀의 자화상을 구입하며 루브르에 입성한 최초의 중남미 여성작가가 되었다. 1939년 르누와 콜 갤러리의 멕시코전에서 파블로 피카소, 바실리 칸딘스키 등이 그녀를 초현실주의 화가로 인정했고, 이후 그녀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화가가 되었다. 그녀가 죽은 후 멕시코 정부는 그녀의 모든 작품을 국보로 지정했다.

척수손상은 사고 이후 즉각적인 처치가 이루어진다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빠른 진단 및 환자 상태에 따른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서 말이다. 척추손상 및 척수손상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외상 이후 마비 혹은 감각이상이 동반된다면 조기에 병원을 찾아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 ☺

기적 같은 회복으로 선물 같은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신경외과 고용 교수님과 소화기내과 이항락 교수님께 보내는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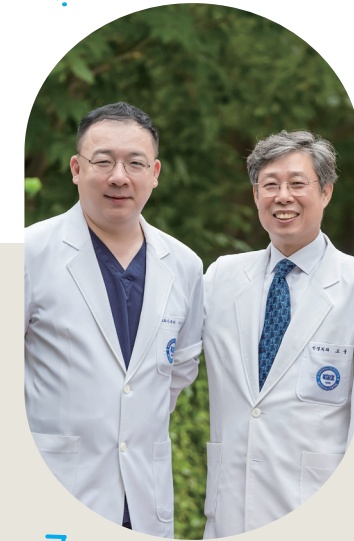


(좌) 소화기내과 이항락 교수 (우) 신경외과 고용 교수

**기적은 바라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란 말이 있다.
한 사람의 실력과, 또 다른 사람의 헌신, 누군가의 정성과 기도가 더해질 때.
기적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곤 한다.
뇌출혈 수술 후 의식이 없던 김세원 님에게 일어난 기적도 그랬다.**

글. 권찬미 사진. 김지원

남은 평생을 의식 없이
누워 살 뻔한 저에게
기적 같은 일상을
선물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혈액과
위풍당당한 풍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김세원 님의 의지와
가족들의 애정 어린
보살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교수님과 이항락 교수님께

머리가 아파 가볍게 들른 병원에서 처음 뇌출혈이란 진단을 받아 입원하던 날. 그 후로 제가 7년 후에야 퇴원할 것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증상은 수술 한 번에 회복되지 않았고, 여러 번의 수술 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두개골의 절반이 없는 채로 살며 의식마저 희미해졌지요. 가족들은 생업도 포기하고 많은 병원을 돌며 저의 의식 회복에 힘썼지만, 상태는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그때 두 분 교수님을 뵈게 되었지요 고용 교수님께선 뇌 손상을 염려해 빨리 수술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인공 두개골을 이식하는 어려운 수술이라 온 가족이 긴장했지만, 전문가이신 교수님을 믿고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기적처럼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마침내 식사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던 날, 영양 섭취를 위해 삽입한 관을 빼며 진심으로 축하해주시던 이항락 교수님의 표정도 잊히지 않습니다.

요즘은 매일 두 시간씩 청계천을 걷고, 얼마 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울릉도 여행을 다녀올 정도로 몸이 좋아졌어요. 약을 타기 위해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휠체어에 타고 이송되던 병원 길을 스스로 걷게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남은 평생을 의식 없이 누워 살 뻔한 저에게 기적 같은 일상을 선물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김세원 드림

김세원 님께

김세원 님과의 인연을 떠올립니다. 김세원 님은 한양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년 퇴임한 한양의 가족이셔서 더 기억에 남았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처음 뵈었을 때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모습이셨지요. 당시 김세원 님은 두개골이 없는 부분이 외부 압력을 받아 뇌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뇌 기능이 더욱 퇴화하여 의식의 회복이 어려워 보였기에 두개골 성형술을 권했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케이스의 수술이었지만 가족들도 저를 믿고 적극 협조해주셨어요. 3년을 두개골의 반이 없는 채로 생활하다가 갑자기 수술을 감행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매일 병상일지를 쓸 만큼 정성 가득한 가족들의 헌신까지 더해져, 성공적으로 인공 두개골을 이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급속도로 뇌 기능을 회복하시는 김세원 님을 보며 참 기뻐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양 섭취를 위한 관을 삽입했다가 스스로 식사가 가능해져서 빼는 경우는 극히 드문 케이스이기에 김세원 님의 회복은 놀라웠습니다.

얼마 전에는 외래 병동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김세원 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 뻔 했습니다. 건강한 혈액과 위풍당당한 풍채를 회복하셨더군요. 모든 것이 김세원 님의 의지와 가족들의 애정 어린 보살핌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양의 가족 김세원 님이 앞으로도 건강한 걸음을 걸어나가시길 응원합니다.

- 고용 교수, 이항락 교수 드림

전신마취 소아환자의 각성 흥분과 불안을 줄이는 방법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는 각성 시기에 녹음된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줄 경우,
회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성 후 섬망’의 발생률과 점수가 감소했다.
또 수술 중 각성을 감시하는 지표인 ‘전두엽의 뇌파신호(Bispectral Index)’
역시 빠르게 회복되었다.”

– 대한소아마취학회 최우수학술상 수상 논문 「Mother’s recorded voice on emergence can decrease postoperative emergence delirium from general anaesthesia in paediatric patients: a prospective randomised controlled trial」 중에서



연구자. 김유진 교수
한양대학교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각성 후 섬망의 문제를 줄이는 안전한 방법

소아환자는 전신 마취 후의 회복 과정에서 ‘각성 후 섬망’이라는 독특한 행동 양상을 보인다. 이는 주변 사물이나 상황 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안과 함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과흥분 현상으로 학령기 이전의 유아에게 흔히 발생한다. 대부분은 특별한 후유증 없이 자연적으로 호전되지만, 증상이 나타나면 침대에서 굴러 떨어져 낙상을 입거나 주사바늘을 뽑고, 수술한 부위의 드레싱을 잡아뜯는 등의 신체적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보호자들도 수술 및 마취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경우, 기존에는 진통제나 진정제 등을 투여하여 조절했으나 제한된 회복실 의료 인력과 약물의 과다 투여 등으로 환자가 일시적 저산소증에 빠지거나 과진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회복실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되기도 했다. 본 연구는 기존의 표준 치료와 다른 방식인 ‘마취 후 각성 시기 동안 목소리 자극’을 통한 방법으로 약물이나 특별한 시술이 들어가지 않으므로 부작용이나 비용 부담 없이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모두의 만족을 높일 수 있다.

엄마의 목소리가 환아에게 미치는 영향

수면 상태에서 인간의 뇌는 주변의 소리 자극에 가장 먼저 반응한다. 특히 엄마의 목소리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가 인지할 수 있고 출산 후 양육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 최

근에는 녹음된 엄마의 목소리가 대뇌 피질에서 나오는 뇌파의 변화를 유도할 뿐 아니라 특정 뇌영역(전뇌 영역, 해마 영역 등)을 활성화시키고 주의 집중을 유도한다는 논문들도 발표되고 있다. 이를 응용하여 신생아 중환자실과 같이 보호자의 접근이 제한된 공간 내에서 미숙아 및 질환을 가진 환아들에게 녹음된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어 환아들의 감정 및 인지의 촉진 효과를 보았다는 연구도 있었지만, 마취 영역에서의 음성 자극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착안하여 수술 종료 후 마취에서 깨어나는 시기인 ‘각성기’에 녹음된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줌으로써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살펴 보았다. 전신마취 하에 안과 및 이비인후과 수술을 받는 2~8세 사이의 환자 66명을 대상으로 했다. 녹음된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그룹과 녹음된 낯선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두 그룹으로 각각 33명씩 배정했다. 이후 수술 종료 시위의 방법대로 각각의 녹음된 목소리를 들려주고서 눈을 뜨는 시간, 기관에 삽입한 관을 빼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측정했다. 수술 및 마취 종료 후에는 회복실에서 환아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각성 섬망 점수와 그 외 상태들을 관찰했다.

그 결과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준 군에서 각성 섬망 점수가 낮았고 각성 섬망의 발생률 또한 감소했으며, 수술 중 각성을 감시하는 지표인 전두엽의 뇌파신호(Bispectral Index) 역시 엄마의 목소리를 들려준 군에서 빠르게 회복되었다.

환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소아환자의 각성 섬망은 자연히 회복되므로 회복실에서가 아니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아니라면 경험하지 못하는 특수한 현상이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 각성 섬망이 수술 후, 수 주가 경과한 뒤에도 환아들의 수면 패턴을 변화시키고 행동 및 심리 변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기도 하다. 본 연구자는 현재 이와 관련해서 수술 후 추적 관찰에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동시에 각성 섬망이 발생한 환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뇌파를 수집하여 분석 중에 있다.📖

Remarkable research

「Mother’s recorded voice on emergence can decrease postoperative emergence delirium from general anaesthesia in paediatric patients: a prospective randomised controlled trial」
(마취 각성기의 엄마 목소리가 전신 마취를 받는 소아환자에서 각성기 섬망을 줄여준다)」



2019년 4월 13일 대한소아마취학회에서 ‘최우수 학술상’을 받은 논문이다. 대한소아마취학회 학술상은 직전 해에 소아 마취와 관련된 주제로 SCI 및 SCIE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가운데 가장 우수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김유진 교수의 논문은 전신 마취 후 소아환자의 각성 흥분 및 불안을 줄이는 예방법을 밝혀낸 데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마취통증의학분야 최고 학술지인 <British Journal of Anaesthesia>에 게재된 바 있다(인용지수=6.499, 2018년 8월). 김유진 교수는 뇌신경마취, 심장마취, 소아마취 등이 전문 분야로 하고 있으며, 대한마취통증학회, 대한뇌신경마취학회, 대한심폐혈관마취학회, 대한소아마취학회 정회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39

2019년 5월 ~ 6월

한양대학교의료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개원의 연수강좌

개원의를 위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의 최신 지견

2019. 04. 21^일
한양대학교 HIT 빌딩 6층 대회의실

Program

Session 1 09:00 ~ 11:00	09:00 ~ 09:40	난치성 천식의 접근과 치료	김상현 (한양외과)
	09:40 ~ 10:20	기침 진료지침의 활용	문지용 (한양외과)
	10:20 ~ 11:00	중환자실에서 초음파 이용	박태선 (한양외과)
Session 2 11:15 ~ 12:15	11:15 ~ 11:45	폐감염의 외과적 처치	정효준 (한양외과)
	11:45 ~ 12:15	흉부 CT 검사의 해석	홍수진 (한양외과)
Session 3 13:00 ~ 15:00	13:00 ~ 13:40	폐암 검진	박동원 (한양외과)
	13:40 ~ 14:20	의료진 잠복결핵의 진단과 치료	이 현 (한양외과)
	14:20 ~ 15:00	산소 치료	송정현 (한양외과)

본원은 지난 4월 21일 한양종합기술원(HIT) 6층 대강당에서 '제19차 호흡기알레르기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강좌는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어 호흡기알레르기내과와 흉부외과, 영상의학과 의료진이 강사로 나섰다.

첫 번째 세션은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상현 교수가 '난치성 천식의 접근과 치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호흡기내과 문지용 교수가 '기침 진료지침의 활용', 박태선 교수가 '중환자실에서 초음파 이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두 번째 세션은 한양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정효준 교수가 '폐감염의 외과적 처치',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영상의학과 홍수진 교수가 '흉부 CT 검사의 해석'을 주제로 강의했다. 세 번째 세션은 한양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박동원 교수가 '폐암 검진', 이현 교수가 '의료진 잠복결핵의 진단과 치료', 손장원 교수가 '산소 치료'를 주제로 강의했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과장 손장원 교수는 "이번 연수강좌가 호흡기, 알레르기 질환의 최신 지견을 비롯해 유용한 정보와 경험들이 오가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양대학교병원

위암·유방암 적정성 평가 1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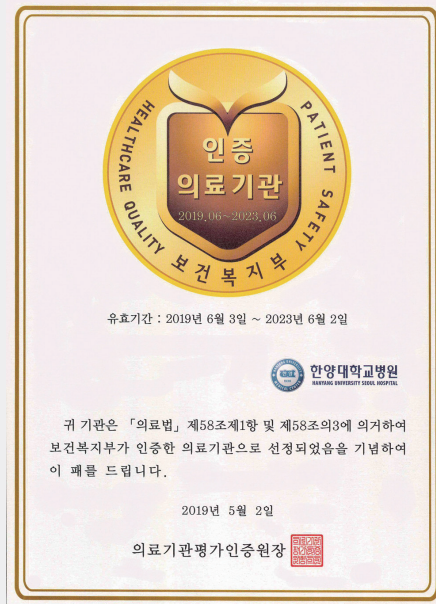


본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위암 적정성 평가'에서 4회 연속, '유방암 적정성 평

가'에서 6회 연속 1등급을 받아 암 치료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이번 적정성 평가는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 18세 이상의 위암, 유방암 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본원은 위암 적정성평가의 13개 지표, 유방암 적정성 평가의 11개 지표 중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 판정을 받아 1등급을 획득했다.

3주기 의료기관 인증 획득



본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2주기에 이어 3주기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의료기관 인증조사는 지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으며, 본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기관 질 향상,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다.

제47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본원은 개원 47주년을 맞아 '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지난 5월 3일 신관 6층 세미나실에서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병원발전에 기여한 교직원 21명에게 '모범직원상'이 수여됐다. '이사장상'은 간호국 최진미 과장 외 2명, '총장상'은 이비인후과 고미령 계장,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상'은 간호국 신은주 계장 외 1명, '병원장상'은 간호국 최인숙 계장 외 14명이 수상했다. 또, 한 해 동안 언론홍보 활동을 많이 한 교수들에게 수여하는 '한양교수언론상'은 심장내과 김경수 교수,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 비뇨의학과 박성열 교수가 받았다. '의무기록상'은 내과 박성화 전공의 외 9명, '친절직원상'은 소아청소년과 김동욱 전공의 외 3명, '환자모시기왕'은 신경과 김희진 교수 외 2명, '우수부서상'은 감염관리실, '공로상'은 (주)에스텍에이스가 수상했다.

윤호주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최근 우리병원은 좋은 경영성과를 거두며 도약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자를 늘 중심에 두고 도약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병원학교 신입교사 워크숍 개최



본원 병원학교는 지난 4월 30일 본관 3층 강당에서 '제14회 병원학교 신입교사 워크숍'을 진행했다. 병원학교 소개로 시작된 워크숍은 환아들의 특성 등 관련 교육, 교사 임명장 수여식으로 이어졌다.

이영호 병원학교장은 "소아암 환아들에게 희망을 주는 병원학교 지속의 원동력은 지난 14년간 봉사해 온 현직교사, 학생교사, 기업 단체 자원봉사자들"이라며 "이번 워크숍이 신입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흡기알레르기질환 건강강좌



본원은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거나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본관 3층 강당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27일에는 호흡기알레르기내과와 이현 교수가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6월 24일에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정승준 교수가 '독감과 폐렴구균'을 주제로 강의했다.

루게릭병 환우를 위한 건강강좌

본원은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관 3층 강당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루게릭병 환자의 영양관리'를 주제로 지난 5월 25일에는 한양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백희준 교수가, 6월 22일에는 진유리 영양사가 강의했다.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1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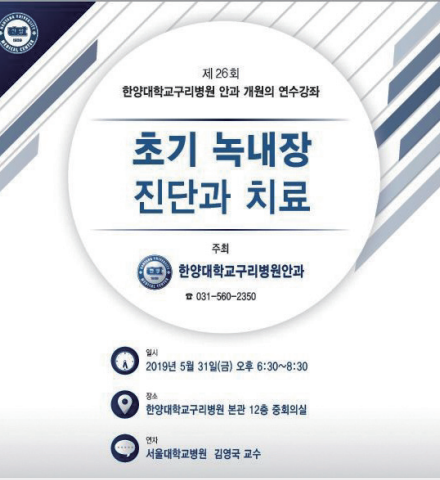
본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예방적 항생제 사용이 권고되는 19개 수술을 시행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본원은 종합점수 99점의 우수한 점수로 1등급 판정을 받았다. 한동수 병원장은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절한 항생제 사용은 필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분석과 적절한 항생제 사용으로 의료 질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2019년도 제19회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개원의연수강좌	
일 시 2019년 4월 20일 (토) 16:00 ~ 20:20	
장 소 본관 12층 대강당 (사망의실전술)	
평 절 대한의사협회 4명정	
연수 일정	
등록 15:30 ~ 15:50 / 환영사 15:50 ~ 16:00 사회 수련교육부장 이혜순	
Session1	회장 : 박원장
치매 치료의 실제 신경과 최호진 교수 16:00 ~ 16:40	고혈압 약물 치료 심장내과 신경훈 교수 18:20 ~ 19:00
진료실에서 흔히 접하는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단 및 치료 마취통증의학과 심재형 교수 16:40 ~ 17:20	건강한 다리, 건강한 노후 흉부외과 노선균 교수 19:00 ~ 19:40
진료실에서 유행성 감염병 환자가 방문했을 때 감염내과 김지은 교수 17:20 ~ 18:00	입병의 진단과 치료 이비인후과 지용배 교수 19:40 ~ 20:20
Session1를 마치고 난 후, Session 2 시작 전엔 18:00부터 18:20까지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본원은 지난 4월 20일 본관 12층 사랑의실천홀에서 '제19회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에서는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치매 치료의 실제', 마취통증의학과 심재항 교수가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단 및 치료', 감염내과 김지은 교수가 '유행성 감염병 환자 대처 방안', 심장내과 신정훈 교수가 '고혈압 약물 치료', 흉부외과 노선균 교수가 '건강한 다리, 건강한 노후', 이비인후과 지용배 교수가 '입병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동수 병원장은 "올해도 다양한 주제로 개원의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최신 의로기술과 다양한 임상 경험들로 소통한 이번 강좌가 지역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과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본원은 지난 5월 31일 본관 12층 중회의실에서 초기 녹내장을 주제로 '제26회 안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안과 과장 성민철 교수는 "개원의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26번째 연수강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녹내장에 대한 최신 지견을 나누며 진료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시 지역주민을 위한 건강강좌



본원은 구리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구리시 보건소 지하 1층 강당에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지난 5월 3일에는 감염내과 김지은 교수가 '예

방접종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 교수는 "해외여행의 증가, 면역저하자 증가 등 여러 이유로 성인에게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예방접종은 나와 내 주변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건강증진활동임을 알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4일에는 흉부외과 노선균 교수가 '건강한 다리, 건강한 노후'를 주제로 강의했다. 노 교수는 "건강한 다리 혈관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를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제21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본원은 지난 5월 24일 류마티스병원 1층 로비에서 '제21주년 개원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본원의 미션과 3대 비전, 핵심가치를 소개하고, 21주년 기념 동영상이 상영됐다. 또한, 모범직원에게는 '한류인상'이 수여됐으며, 21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케익 커팅과 다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유대현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본원은 사랑을 실천하는 열린 병원으로서 연구와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는 연구중심병원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류마티즘 전문병원을 목표로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전 구성원 모두가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라고 당부했다.

인물동정

김유정 교수, 미국안과학회 Travel grant 수상
한양대학교병원 안과 김유정 교수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캐나다 밴쿠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국안과학회(ARVO) 컨퍼런스에서 '쇼그렌증후군 환자의 눈물에서 마이크로알엔에이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로 'Travel grant'를 수상했다.

윤호주 병원장, 의사평론가로 선정
한양대학교병원 윤호주 병원장이 지난 5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학평론가 가장 수여식'에서 의학계의 활발한 학술연구와 논평 등 언론활동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의사평론가로 선정됐다.

배상철 교수, 백남석학상 수상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류마티스내과 배상철 교수가 지난 5월 15일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개교기념식'에서 백남석학상을 수상했다. 백남석학상은 한양대를 설립하고 교육 사업에 전념한 백남(白南) 김연준 박사(1914~2008)의 뜻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교육·연구 분야에 뛰어난 업적을 보인 학자를 매년 선정해 개교기념일에 수여하고 있다.

문진화 교수팀, 국제학술지에 연구 논문 게재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소아청소년과 문진화 교수팀이 소아청소년의학 영역에서 권위 있는 국제학술지인 Acta paediatrica, May;108(5):903~910 5월호에 「유아기의 스마트기기 사용이 소근육 발달 및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박종은 교수, 대한진단유전학회 우수연제상 수상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진단검사학과 박종은 교수가 지난 5월 29일과 30일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대한진단유전학회 학술대회에서 '한국인 소두증 환자의 유전학적 분석'이라는 발표로 '구연 부문 우수 연제상'을 수상했다.

김대희 팀장, 마르퀴즈 후즈후에 등재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김대희 팀장이 미국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Who)사에서 발행하는 세계 3대 인명사전의 하나인 <후즈후 인더 월드(Marquis Who'sWho in the world)> 2019년도판에 등재됐다.



후원 분야

- 의료원발전기금: 의료원의 시설, 장비 투자 등에 사용됩니다.
- 교실발전기금: 각 교실의 연구, 교육, 학술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진료과발전기금: 한양대학교병원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각 진료과의 연구, 교육, 학술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 지정기부금: 원하시는 곳에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시는 기부금입니다.

※ 문의 : 한양대학교의료원 대외협력실 대외홍보팀 Tel. 02-2290-9535~6

여러분의 소중한 나눔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의 디딤돌입니다

질병 극복의 꿈을 안고 새로운 연구로 끊임없이 희망을 찾는 한양대학교 의료원과 동행해주십시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로 바로 이동합니다.



후원 방법

1. 무통장입금
 - 신한은행 100-031-815946(예금주: 한양대학교병원)
 - 신한은행 100-031-811944(예금주: 한양대학교구리병원)
 2. 자동이체(CMS)
 3. 급여공제(교직원)
- * 온라인 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fund.hyumc.com) ▷ '발전기금 참여' ▷ '온라인 기부' ▷ 약정내용 작성

기부자 예우

후원해 주신 기부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예우를 제공해 드립니다.

	500만 원 미만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상	3억 원 이상	5억 원 이상
기부증서	●	●	●	●	●	●	●
감사서신, 생일카드	●	●	●	●	●	●	●
의료원 매거진	●	●	●	●	●	●	●
기부자 명부 영구 보존	●	●	●	●	●	●	●
무료 주차			●	●	●	●	●
감사패				●	●	●	●
행사 VIP 초청					●	●	●
의료혜택	우선 진료		●	●	●	●	●
	우선 입원		●	●	●	●	●
	전담 직원			●	●	●	●
	종합검진(부부)		30%	50%	70%	100%	100%
장례식장 감면				20%	30%	50%	100%

한양대학교의료원 발전기금

2019년 4월 ~ 2019년 5월 기부자 명단

발전기금은 의료원 발전의 디딤돌입니다.
기부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나눔이 한양대학교의료원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용	김한준	변순현	은창수	전석분	한동수	김기라
	공동의	김현욱	서승표	이경섭	전용철	한명훈	김나영
	한마음창원병원	곽인영	김희숙	서우영	이경식	전우재	한상웅
50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구선완	김희수	서정심	이경희	전재범	한승훈	김도와
	국은영	남승혁	서정원	이광현	전형준	한장희	김동관
	김경중	남영자	성명순	이규용	정규성	한주희	김란
	김동수	김금옥	남정현	성민철	이두연	정미선	홍성숙
	김형진	김남기	노선균	손주현	이봉근	정수경	홍의호
	박재일	김대호	노정환	손한숙	이상현	정우성	황의손
	오정석	김도윤	노준모	송창면	이상훈	정재호	10만 원 미만
	유준호	김동윤	류기영	신대현	이성필	정재홍	
	윤여욱	김문성	류제일	신동한	이승욱	정진혁	
	이동규	김성재	문지용	신순교	이승환	조기섭	강문주
	이용섭	김승현	문진화	신용운	이양섭	조명희	강민아
	임수성	김양옥	문홍상	신우종	이영석	조상윤	강석범
정진환	김영보	민경환	신정훈	이유경	조아라	강신창	강성훈
	100만 원 미만 ~50만 원 이상	김영수	박기철	신태양	이은희	조영훈	김민정
		김영호	박동우	심경아	이장현	조주열	김병숙
	김영애	김옥중	박예수	심재항	이제인	조현진	강지원
	김재민	김용수	박용미	심지훈	이종	조희운	김상미
	이하은	김용호	박용천	안치원	이주학	주신환	공지현
50만 원 미만 ~ 10만 원 이상	김우길	박원희	여광호	이주한	지용배	권난희	공경숙
	김운용	박일규	염상철	이진규	채영림	권미화	김상희
	김영애	김윤영	박찬혁	염종훈	이창범	최경진	김상현
	김재민	김이석	박창구	오미경	이창우	최규선	김성철
	이하은	김정수	박태선	오영하	이창훈	최성환	김성훈
	강일규	김지영	박혜경	오재원	이형중	최성훈	권유진
	강정한	김지은	박환철	유교상	이혜순	최완식	권혁천
	강창남	김창렬	박원겸	유미경	이화준	최정혜	권현숙
	강형구	김창선	박희정	유정아	임완예	최준호	권혜영
	강홍구	김철웅	박희철	유창성	임종선	최충혁	김아름
	고란주	김충현	반은주	윤명희	장성호	최호진	김애경
	고병우	김태완	백광흠	윤여필	장재선	최홍용	김경숙
고성호	김태형	백운철	윤원구	장태원	하루미	김광영	김영신

김영연	명영숙	박혜정	양효선	이경은	이종열	조환영	현순희
김영일	문상희	방성주	엄혜정	이경철	이주영	지미경	홍대영
김영자	문영민	배순석	여은주	이관석	이주현	지은아	홍민영
김영훈	문재봉	배은희	오금복	이규택	이주현	지혜정	홍숙익
김육원	문정희	백형정	오기향	이금란	이진주	진춘희	홍은미
김은미	문희애	백혜연	오미혜	이나영	이현주	천경희	황성희
김은실	박경림	서명진	오영숙	이두종	이현중	천영복	황영순
김은희	박경미	서병갑	오유선	이명숙	이혜정	천은미	황정선
김인호	박경숙	서소연	오정남	이명주	이호문	천은선	황준호
김자윤	박경희	서승희	오지현	이미경	이호용	최문정	황희수
김재희	박근배	서승희	오홍석	이미란	임경순	최미옥	기부금 명단은 가나다 순입니다.
김정달	박미숙	서영남	오화경	이미정	임연희	최민희	
김정숙	박미순	서현주	오희순	이미정	임은실	최선희	
김주희	박미옥	설명길	옥상열	이민진	임인자	최성은	
김준식	박상혁	성경희	우순희	이상미	임정연	최세연	
김종식	박선아	성혜윤	우정미	이새름	임주아	최소담	
김창금	박선영	손영성	원혜정	이서윤	임지영	최승희	
김창복	박선영	손진석	원홍석	이선영	임화영	최신자	
김철한	박선희	송은경	유고은	이선화	장경희	최영선	
김초름	박성옥	송주영	유미화	이성모	장선정	최윤희	
김춘애	박성찬	송현수	유병호	이성미	장윤주	최재범	
김태근	박소은	신명희	유선길	이소연	전경신	최정연	
김태호	박수미	신미숙	유숙	이수연	전호선	최종석	
김하연	박수정	신수지	유영미	이숙	정경은	최종은	
김현주	박순구	신정미	유은희	이숙희	정기영	최현구	
김현진	박연희	신정철	유정안	이순자	정대천	최현주	
김현창	박용범	신철우	유주량	이승호	정선주	최혜용	
김형근	박유정	신현주	유지학	이연주	정선희	최희영	
김형석	박은수	심요라	유현영	이영미	정수정	표은주	
김형주	박은영	안명현	유현주	이예린	정은영	하경애	
김혜림	박은영	안미경	육수영	이윤미	정일웅	하은영	
김황룡	박은형	안석태	윤경주	이윤진	정임중	한상운	
김효준	박응범	안선미	윤선미	이은경	정정미	한승희	
김회원	박점현	안유정	윤선애	이은명	정지현	한아영	
김희나	박주은	안은종	윤아름	이은애	정현정	한정연	
나소정	박지경	안은진	윤인숙	이은주	정혜영	한현남	
나인철	박지애	안정미	윤정희	이정식	정훈	한현정	
남기준	박지혜	안정은	윤지선	이정애	조구성	함명자	
남순영	박진옥	양길녀	윤향순	이정은	조규선	허정현	
노광규	박진희	양미영	윤현순	이정인	조은영	허지선	
노옥석	박진희	양수용	윤희정	이정화	조인옥	허지영	
노창완	박춘아	양은주	음희재	이정화	조현교	허태영	
류중백	박현화	양정자	이강연	이정희	조현일	허효숙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외래 진료 시간표

* 2019년 7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정형외과	김영호	월, 수, 금		인공관절치환술, 골절(고관절 및 슬관절)
	박태수	월	수, 금	견관절
	박예수	수, 금	월	퇴행성 및 골다공성 척추질환, 척추기형
	박기철	수, 목, 토(4주)	화	사지골절, 골반골절, 사지변형교정술
	이정일	월, 토(2주)	화, 금	수부 및 손목관절, 미세 재건외과
	양재혁	화, 목, 토(3주)	수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스포츠손상
산부인과	조영훈	화, 토(1주)	월, 목	견주관절, 스포츠손상, 회전근개 질환
	류기영	월, 토(2주)	화, 목	조기진통 및 조산, 고위험임신, 초음파, 태아 이상의 진단 및 치료, 일반부인과(복강경수술), 부인암, 고위험산모
	정언석	수, 금, 토(3주)	월	정상임신, 고위험임신
	부혜연	화, 목, 토(4주)	금	정상임신, 고위험임신
성형외과	최윤서	토(1주)	수	정상임신, 고위험임신, 일반부인과
	유재만	목	화	일반 성형외과
	이창현	월, 화, 토(2,4주)	목	안면기형 및 재건, 피부암, 미세재건수술, 침샘종양, 미용성형
	장정우	수, 토(1,3주)	월, 금	안면외상, 욕창, 당뇨족, 미용성형
	남영수	월, 수	목	대장항문질환, 유방암, 갑상선질환
	이흥기	수, 금	월	혈관(대동맥, 경동맥, 당뇨발), 이식, 간담체질환
외과	박현검	목	화, 금	간담체질환, 복강경수술
	김한준	화, 금	목	간담체질환
	김민규	화, 금	수	상부 위장관질환, 복강경위절제술, 탈장
	김형식	월, 목, 토(1-4주)	화	유방, 갑상선질환
	이준호	목	월, 수	대장항문
안과	조희윤	화, 목	목	망막 및 유리체질환, 당뇨망막변증, 황반변성, 포도막염
	성민철	수, 금	월, 수	녹내장, 백내장
	신용운	월, 금, 토(1주)	수	신경안과, 저시력, 당뇨망막병증, 포도막염
	김유정		금	외안부질환, 골절, 백내장
	홍은희	토(3주)	월, 화, 목	신경안과, 사시, 소아안과, 저시력, 성형안과
	이정옥	화, 목, 토(4주)		성형안과, 일반안과, 백내장
피부과	김정수	월, 목, 토	월, 화	여드름, 주사, 건선, 소아피부질환, 피부종양 및 사마귀성 질환
	서현민	화, 수, 금	수, 목	아토피피부염, 두드러기, 백반증, 피부외과
	김영균	화, 수	금	일반피부질환
이비인후과	이승환	월, 수	목	만성중이염, 난청, 이명, 어지럼증, 인공와우이식
	정진혁	화, 금	수	부비동염, 비중격질환, 코막힘, 알레르기비염, 코골이, 코성형
	지용배	월, 목, 토(3주)	화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경부종물
	정재호	금, 토(1주)	월, 수	어지럼증, 난청, 이명, 중이염
	이윤재	수, 토(4주)	월, 금	비부비동염, 비중격만곡증, 알레르기비염,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김무건	목, 토(2주)	화, 금	이막, 두경부질환 및 일반이비인후과 질환
비뇨의학과	최홍용	화, 목	수	결석, 전립선질환, 요실금, 비뇨기종양
	문홍상	수, 토(3주)	월, 금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질환, 배뇨장애, 요실금
	이승욱	월, 금, 토(2주)	화	복강경수술, 종양, 남성과학
	김규식	월, 토(1,4주)	목	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재활의학과	장성호	월, 금, 목, 토(4주)▲	월, 수	근골격계재활, 스포츠의학, 노인의학
	한승훈	화, 목	화, 목, 금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요통, 오십견, 관절염), 스포츠 의학, 뇌신경재활, 삼킴장애
치과	박재현	월, 화, 수, 토(2주)●	목, ●, 금	일반 재활의학과질환, 근골격계재활, 운동치료
	박원희	월-목, 토(1,4주)	수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턱관절질환
통증클리닉	김윤영	화, 금, 토(2,3주)	월, 화, 목, 금	보철, 임플란트, 틀니, 미백
	심재환	월, 수, 금	월, 금	요통, 관절통, 만성통증, 암성통증, 통증질환
핵의학과	김지영		화	종양핵의학
	장태원		화	직업성 질환, 업무관련성 평가, 업무적합성 평가
직업환경의학과	김영태	월-금	월-금	혈관 및 비혈관계 인터벤션시술

■ 대표전화 : 1644 – 9118

http://guri.hyumc.com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소화기내과		손주현	화	월, 목	각종 간질환(지방간, 알코올성 간질환, 간염, 간경변증, 간암)
		한동수	월, 목	화	위장관 질환(염증성 장질환, 대장암, 기능성 위장질환)
		전용철	월, 금	수	소화기, 위장관 질환
		은창수	수, 금	월	위질환, 대장질환, 식도질환, 위암, 대장암, 대장용종
		유교상	화, 수, 토(2, 4주)	목	담도, 췌장질환, 소화기질환
		박찬혁	목, 토(3주)	수, 금	위-식도역류질환, 위암, 위궤양, 기능성 소화불량, 위암 식도재건술
		안지현	수, 목, 토(1주)	화, 금	각종 간질환(지방간, 바이러스간염, 간경변증)
심장내과		이재곤	화, 금	목	소화기, 위장관질환
		김순길	월, 화, 목, 금		임상심장학, 고혈압, 비혈관적 심기능 검사
		박한철	수, 목, 토(1,3주)	화	부정맥진단 및 치료, 협심증, 인공심박동기 및 체내삽입형 제세동기 삽입술
		신정훈	월, 수, 토(4주)	수, 목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말초혈관질환, 심부전
		이운구	화, 토(2주)	월, 수, 금	관상동맥 질환, 심혈관 중재술,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김현진	금	월, 화	심부전, 판막질환, 심근병증, 심막질환
		한상웅	월, 목(클리닉), 금	화, 수	만성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증, 사구체신염, 고혈압, 투석요법
신장내과		이주학	화, 수, 목, 토(2,4주)	월, 목	전해질이상질환, 투석치료, 사구체신염, 고혈압, 부종
		임유정	월, 토(1,3주)	화, 금	만성콩팥병, 당뇨병, 통풍병증, 고혈압, 사구체신염
		이창범	화-금	월, 목	당뇨병, 갑상선질환, 비만증, 골다공증
내분비대사내과		유성훈	월, 금, 토(3,4주)	화, 금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일반내분비질환
		이혜순	월, 수, 목, 토(3주) 금,토(1주)▲	화, 월,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경피증, 섬유근통
류마티스내과 관절류마티스 클리닉▲		방소영		해 외 연 수	
		권혁희	월, 화, 금, 토(2,4주), 목▲	수, 목, 화▲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루푸스, 통풍, 베체트병, 만성통증
		유현승	수, 목, 토(1주), 월, 화, 토(3주)▲	월, 화,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 베체트병, 루푸스, 만성통증
		김태형	월, 수, 목	화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호흡기내과		문지용	화, 금, 토(1,3주)	월, 목	만성기침, 호흡곤란, 천식, COPD, 결핵, 폐암
		박태선	토(4주)	수	중환자리학, 폐렴, 호흡부전, 급성호흡곤란 증후군
		여유미	수, 금, 토(2주)	월, 화	만성폐쇄성 폐질환, 천식, 결핵
		조민주		금	
중환자실	내과계 외과계	박태선	월~금	월, 화, 목, 금	내과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인석	월~금	화, 수, 금	외과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혈액종양내과		최정혜	화, 목, 토(2,4주)	월, 금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혈압
		원영웅	월, 수, 금	화, 목	혈액암, 빈혈 및 혈액질환, 고혈압
감염내과		김지은	목, 토(2,4주)	월, 화, 수	감염질환, 불명열,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해외여행자
		김진영	화, 금		감염질환, 불명열,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해외여행자
		김창렬	금	화	신생아, 영아신경발달 및 질환, 미숙아
		오재원	수, 금, 토(3주)	월, 수	소아호흡기,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소아청소년과		문진화	월, 화, 목, 금(2주)	화, 목	소아신경질환(경련, 두통, 발달지연)
		이영호	월		소아혈액종양
		김남수		월	소아심장질환
		최영진	월, 목, 토(1주)	월, 수, 금	소아호흡기질환, 알레르기질환
		강은구	월, 수, 토(4주)	수, 목, 금	소아내분비, 성장, 유전대사질환
		이경석	화, 토(2주)	목	소아응급, 소아일반질환
신경과		이영주	화, 금	월, 목, 금	뇌졸중, 치매, 파킨슨병, 어지럼증, 하지불안증후군
		이규용	월, 수, 금	화, 수	뇌졸중, 두통, 말초신경병증, 하지불안증후군, 손저림
		고성호	월, 화, 수, 목	수	뇌졸중, 신경퇴행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최호진	화, 목, 토(2주)	월, 화(2,3주), 목	치매, 뇌졸중, 두통
		권현석	수, 토(1,3,4주)	월, 수, 금	뇌졸중, 어지럼증, 뇌전증, 수면장애
		박용진	화, 목(보통진), 수, 목	월, 목	문화정신의학, 정신분석, 정신치료, 화병
정신건강 의학과		김대호	화, 목, 토(1주)	월, 화, 목(2주), 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EMDR
		최준호	월, 수, 금, 토(3주)	수	조현병, 조울증, 신경영양학
		이호선	월, 화, 토(2주)	수, 금	노인정신의학, 치매, 인지기능 장애, 일반정신의학
신경외과 척추신경외과 클리닉▲		김재민	수, 목, 토(1주)	월	뇌혈관질환, 두개저부뇌종양 및 뇌동맥류, 뇌종양
		정진환	월, 토(2주)	화, 목	두부외상, 뇌혈관질환, 뇌혈관내수술
		류제일	화, 수, 토(4주)	화▲, 금	척추질환(허소척추척추수술), 척수종양, 두부외상
		한명훈	월, 금, 토(3주)	수	뇌종양, 뇌정위기능, 두부외상
흉부외과		배인석		월, 목	일반 척추질환, 두부외상
		노선균	화, 금	수, 금	심장질환(관상동맥, 심장판막질환, 심장종양, 대동맥 및 혈관질환(동맥류, 말초동맥질환, 하지정맥류 등), 흉부외상, 기흉
		남승혁	월, 수	월, 목	흉강경수술, 폐암, 식도암, 양성폐질환, 기흉, 다한증, 종격동질환, 흉부외상, 흉곽기형

* 2019년 7월 기준이며, 시간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진료는 각 외래로 문의 바랍니다.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방사선종양학과	전하정	월, 수	화, 수, 목	부인과종양, 유방암, 비뇨기종양
2290-8614	박해진	화, 금	월, 화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 림프종, 유방암, 방사선수술
핵의학과	최윤영		수	갑상선 동위원소 치료
2290-9260				
치과	심광섭	화, 금	수	턱알굴외상,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황경균	월, 화, 목	월, 화, 목	턱알굴성형수술(기형),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정법
	박창주	화, 목, 금	화, 목, 금	턱알굴 성형수술, 임플란트, 턱관절질환, 치과진정법
	한지영	월-금	금	치주질환, 치주성형, 치주조직재생, 임플란트
	김주형	월, 화, 목, 토(4주)	월, 화, 목	심미교정, 설측교정, 금속교정, 수술교정
	이은혜	월, 수, 금	월, 수, 금	보존치료, 심미수복치료, 근관치료, 치아미백
맞춤형 비만치료센터	권구현	월, 수, 금	월, 수, 금	임플란트, 완전/부분틀니, 심미보철
	박훈기	월	목	맞춤형 비만관리 및 검진
	황환식	화	금	맞춤형 비만관리 및 검진
2290-9720	하태경		화	고도비만대사 수술
가정의학과	박훈기	수, 금, 토(2주)	월, 목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화, 목, 토(4주)	금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2290-8738				
직업환경의학과	이수진	월, 수, 목, 토(2주), 월	월, 수, 목	근골격계질환, 새집증후군
2290-9777	송재철	화, 수, 금, 토(2주), 월	화, 수, 금	환경 및 산업의학, 직업성 천식

한양대학교류마티스병원

동관 1층 : 02-2290-9216, 9217, 9226

류마티스내과	유대현	월, 화, 목, 토(2주)	화, 수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성인형스틸병, 근염
	배상철	월, 수, 목	월, 목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루푸스
	전재범	화, 수, 금, 토(1,2주)	목, 금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경피증, 통풍
	김태환	화-목, 토(1,3주)	월, 화	강직성 척추염, 퇴행성 관절염
	성윤경	월, 수, 금	월, 수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골다공증, 쇼그렌병
	최찬범	화, 수, 금, 토(3주)	수, 금	류마티스관절염, 퇴행성관절염,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베체트병
	조수경		해 외 연 수	
	강주연	수, 토(1주)	월, 화, 목	일반 류마티스질환
	김지승	월, 목, 금, 토(3주)	수	일반 류마티스질환
	남보라	화	월, 수, 금	일반 류마티스질환
관절재활의학과	신정민			일반 류마티스질환
	이연경	목, 토(2주)	금	일반 류마티스질환
	박시복	수, 금, 토(4주)	월, 수	족부재활, 류마티스재활, 근골격재활
	이규훈	월, 화, 목, 토(2주)	화, 목	족부재활, 관절재활, 스포츠의학
	임현영	화, 금	화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박희경	목	월, 목	신경병증성통증, 척추통증
통증의학과				
2290-9216				
골·관절외과	최충혁		월	슬관절클리닉(관절경, 인공슬관절치환술), 류마티스슬관절염
	이봉근	금		주관절, 회전근개질환, 류마티스질환, 관절경, 견관절
	김유정	목	월	쇼그렌증후군, 건성안, 류마티스 관련 눈질환

한양대학교국제병원

서관 3층 : 02-2290-9550, 9551, 9552

종합검진	이오영	목	월	식도, 위, 장질환, 용종, 각종치료내시경
	박훈기		화, 수	스포츠의학
	황환식		월, 목	건강증진의학, 노인의학
2290-9550	박계영	월-금, 토(2,4주)	목, 금	가정의학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특수전문분야
신경외과 2290-8491	고 웅	월, 수	월	뇌종양질환, 내시경뇌하수체 수술, 뇌신경질환, 척추질환
	김영수	화	목	뇌종양,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 삼차신경통 및 통증성 질환, 방사선수술(노발리스TX)
	백광흠	월, 수, 토(2주)	금	디스크, 요통, 척추관협착증, 척추골절, 척추기형, 척수종양
	이형중	목, 토(1주)	화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뇌동맥류, 수두증
	전형준	금, 토(4주)	수	척추질환, 척추외상, 척추종양, 두부외상
	최규선	금	수	뇌혈관질환, 혈관내수술, 두부외상,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방지훈	목, 토(3,4주)		일반 신경외과질환
	백승철		화	일반 신경외과질환
성형외과 2290-8560	안희창	수, 금	월	유방재건 및 성형, 선천성 얼굴기형, 레이노드병, 손재건
	김연환	화, 목	화	하지재건, 외상, 안면외상, 미용성형, 욕창, 액취증
	양은정	월, 토(1,3주)	수, 목	안면외상, 화상, 만성창상, 지방흡입, 유방성형, 미용성형, 안면거상
	박성오	월, 토(2,4주)	수, 금	안면외상, 수부외상, 선천기형, 미용성형, 미세재건, 두경부재건
산부인과 2290-8400	윤정수	수, 금	월	일반 성형외과질환, 안면외상, 화상, 창상
	황정혜	수, 금	월, 목	폐경,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 수술
	최종섭	월, 수	수, 금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호정규	월, 화, 목, 토(1,3주)	화	고위험임신, 조산, 일반산부인과,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배재만	화, 토(1,3주)	월, 목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원무	목, 금, 토(2,4주)	화	난소암, 자궁암, 일반산부인과,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엄정민	금, 토(2,4주)	월, 수	일반 산부인과, 난소암, 자궁암, 로봇수술, 자궁경 및 복강경수술
	이효진	월, 수	금	일반 산부인과질환
안과 2290-8570	금지현	화, 토(2,4주)	목	일반 산부인과질환
	이병로	화, 목	목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임한웅	수, 금, 토(4주)	월	소아안과, 사시, 안성형, 신경안과
	안성준	금, 토(1,3주)	화, 수	망막, 유리체, 백내장, 포도막, 미숙아망막증
	김유정	월, 토(2주)	화, 목, 금(구제)	외안부, 굴절교정, 백내장
	이원준	월, 수, 토(2주)	월, 금	녹내장, 백내장, 시신경질환
이비인후과 2290-8580	류소정		금	일반망막질환, 눈물흘림, 안성형, 백내장
	박철원	화, 금	화	만성중이염, 난청, 어지러움증, 이명, 안면신경마비
	김경래	목, 토(2주)	월, 목	부비동염, 알레르기성비염, 부비동내시경
	태 경	월, 수	수	두경부종양, 갑상선종양, 로봇갑상선수술, 경부종물, 음성장애
	조석현	월, 금(수면클리닉), 토(1주)	월(수술), 수	부비동염, 알레르기비염, 부비동내시경, 코골이, 코성형, 악안면외상, 수면무호흡
	송창면	목, 토(3주)	화, 목(음성클리닉)	후두음성질환, 성대질환, 편도질환, 구강질환, 갑상선암, 두경부암
비뇨의학과 2290-8593	변하영	수, 토(4주)	월, 수(어지럼증클리닉), 금	어지럼증, 난청, 소아이비인후과질환, 이명, 중이염, 안면신경질환
	김동환	월	금	일반 이비인후과질환
	김용태	화, 목, 토(2주)	화, 수	배뇨장애질환, 여성비뇨기질환, 비뇨기암, 요로결석, 남성성기능장애, 불임
	박성열	월, 목, 토(1주)	월, 수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전립선질환, 요로결석, 소아비뇨기질환
재활의학과 2290-9350	윤영은	화, 수	화, 금	결석, 혈뇨, 로봇수술, 신장암, 신장이식, 최소침습수술, 항암치료
	조정기	월, 금, 토(4주)	월, 목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 복강경 및 로봇수술, 요로결석, 전립선질환
재활의학과 2290-9350	김미정	월, 수, 금, 토(4주)	월, 수	소아재활, 근골격계재활, 노인재활, 뇌신경재활